

삼국시대 동경 부장의 의미

The Meaning of Buried Bronze Mirrors
in the Three Kingdoms Period

김동균

경북대학교 실크로드조사연구센터 연구원

I. 머리말

II. 동경의 분류

III. 권역별 동경 출토양상

IV. 삼국시대 동경 부장의 의미

V. 맺음말

국문 요약

고대 동아시아의 동경은 당대 구성원들의 미의식, 우주관이 깊게 반영되는 기물이었으며 각 지역 사회에서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사용되었다. 이 글에서는 여기에 주목하여 삼국시대의 동경, 특히 한식경과 왜경을 단순한 외래계 유물로 바라보지 않고자 하였다. 삼국시대 한반도에서 동경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지, 나아가 각 지역사회에서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였으며 활용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4~6세기 한반도 남부 전체를 대상으로 지형과 수계, 정치체를 고려하여 5개의 권역으로 구분하였다. 각 권역의 동경 출토양상을 살펴보면서 동경이 어떻게 부장되고 매납·폐기되었는지를 검토하였다. 고대 동아시아 사회에서 동경이 지녔던 의미를 참고하여 삼국시대 한반도 동경이 지닌 의미를 추론하였다.

결론적으로 삼국시대 사회에서 동경은 다른 고대 동아시아 사회만큼 수요가 높지 않았으며 각 지역사회에서는 저마다의 시각에서 동경을 이해하였고 서로 다르게 동경을 활용하였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는 여타 고대 동아시아와는 또 다른 면모를 보여준다.

보는 이에 따라 기물을 바라보는 시각은 모두 다르다. 기물에 대한 시각은 때로는 공유되고 재생산되며 가족, 집단, 사회로 확산되며 때로는 점차 소멸되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삼국시대의 동경을 대상으로 동일한 기물이 서로 다른 시공간적 맥락에서 다르게 받아들여지고 다르게 활용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동경, 부장양상, 한경, 왜경, 인식

I . 머리말

고대 동아시아의 거울은 주로 구리와 주석, 아연을 일정 비율로 배합하여 주조하는 동경(銅鏡)의 형태로 제작되었다. 동경의 경배면(鏡背面)에 동심원, 방형 등 구획으로 베풀어지는 다양한 장식은 시·공간적으로 다채로운 양상을 보여준다. 한경(漢鏡), 다뉴경(多鈕鏡), 왜경(倭鏡) 모두 저마다 특징적인 장식을 가지며 여기에는 당대 구성원들의 미의식, 우주관이 깊게 반영된다(岡村秀典 1984).

이와 동시에 동경은 고대 동아시아 각 지역사회 속에서 저마다의 의미를 지니고 사용되었다. 같은 동경이라고 하여도 때로는 사치품과 같은 일상용품으로, 때로는 신기(神器)의 성격을 가진 의기로, 때로는 정치적 기물로 기능하며 다양한 의미를 지녔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한반도에서는 특히 청동기~초기철기시대의 다뉴경과 원삼국시대의 한경 및 방제경을 중심으로 동경이 가졌던 의미 등이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삼국시대 이후의 동경에 대한 연구는 자료 자체가 희소했던 탓에 1990년대까지 자료 소개와 간단한 고찰에 그친 경향이 있다(金元龍 1964; 小田富士雄 1988).

2000년대부터는 거듭된 발굴조사로 자료 수가 증가하며 점차 논의가 진전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한식경과 왜경이 다량 확인되는 것에서 외래계 유물의 하나로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아왔다. 자연스레 동경은 외래계 유물의 연장선에서 당대의 정치교섭, 대외교류사의 단면을 반영하는 기물로 파악(李在賢 2000; 上野祥史 2004, 2014, 2019; 井上主税 2005; 高田貴太 2005; 박천수 2007, 2023; 이유진 2010; 李陽洙 2010, 2020, 2021b; 新井惡 2010; 辻田淳一郎 2018; 김지은 2021)되었다.¹⁾ 이 덕에 삼국시대 대외교류사의 많은 부분이 드러나게 되었다.

문제는 삼국시대 동경 자체에 대한 고찰이 그다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대외교류사를 반영하는 기물로만 이해되고 있다는 점이다. 근래 일본 학계에서는 한반도로의 왜경 유입을 야마토 정권의 동경 배포 의도와 연결짓는 시도(上野祥史 2014, 2019)가 이루어진 바 있다. 이는 이미 일본열도 내에서 동경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었으며 그 유통 및 부장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기반이 탄탄히 쌓여있는 덕

1) 그중에서도 무령왕릉 출토 동경 3점에 대해서는 제작지와 유입경로를 중심으로 일찍부터 많은 논의(山尾幸久 1989; 김영덕 2001; 구중희 2006; 田中俊明 2007; 辻田淳一郎 2018; 韓茗 2020; 福永伸哉 2021)가 이루어졌으나 여기서는 상술하지 않도록 한다.

분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한반도의 경우 동경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지에 대한 상세한 고찰이 부족한 와중에 대외교류사적으로만 연구가 집중되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 동경은 고대 동아시아 각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의미를 지녔던 기물이다. 그렇다면 동경을 통한 대외교류사의 접근 이외에도 삼국시대 한반도, 나아가 한반도 내 각 지역사회에서 동경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지가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검토함으로써 한반도에서 한식경과 왜경이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더욱 명확해질 것이며 이는 나아가 고대 대외교류사 규명에도 하나의 밑바탕이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삼국시대 한반도에서 동경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지, 나아가 각 지역에서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의 대상 시기는 4~6세기로 두며 대상 지역은 자료 접근이 용이한 한반도 남부로 설정한다.

특정 기물이 지녔던 의미는 해당 기물의 유통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상황에 따라 모두 달랐기 마련이다. 이는 각 상황마다 해당 기물이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를 살펴보아 유추할 수 있다. 동경의 경우 주로 고분에 부장되는 경우가 많고 일부 제사유구 등에 매납·폐기되는 사례도 있다. 도굴, 경작 등에 의해 유구가 조영 당시의 정황을 잊지 않았다면 동경의 출토양상은 동경을 부장, 매납·폐기한 당시의 정황을 담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자료에 한해 출토양상을 검토함으로써 삼국시대 한반도 사회에서 동경이 지녔던 의미를 추론해보고자 한다.

Ⅱ장에서는 동경의 분류를 진행하며 용어를 정리한다. Ⅲ장에서는 권역을 설정하여 동경의 출토양상을 검토함으로써 동경이 어떤 맥락에서 부장, 매납·폐기되었는지 살펴본다. Ⅳ장에서는 삼국시대 사회에서 동경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지를 추론해보도록 한다. 이를 위해 고대 동아시아 사회에서의 동경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Ⅲ. 동경의 분류

1차적으로 제작의 주체를 중국 대륙 혹은 일본열도에서 구할 수 있는 동경을 각각 중국경과 왜경(田中琢 1981: 20)으로 총칭한다. 중국경과 왜경은 각각 경배면을 장식하는 문양의 형태와 구성에 따라 몇 가지 계열, 즉 경식(鏡式)으로 분류된다. 중국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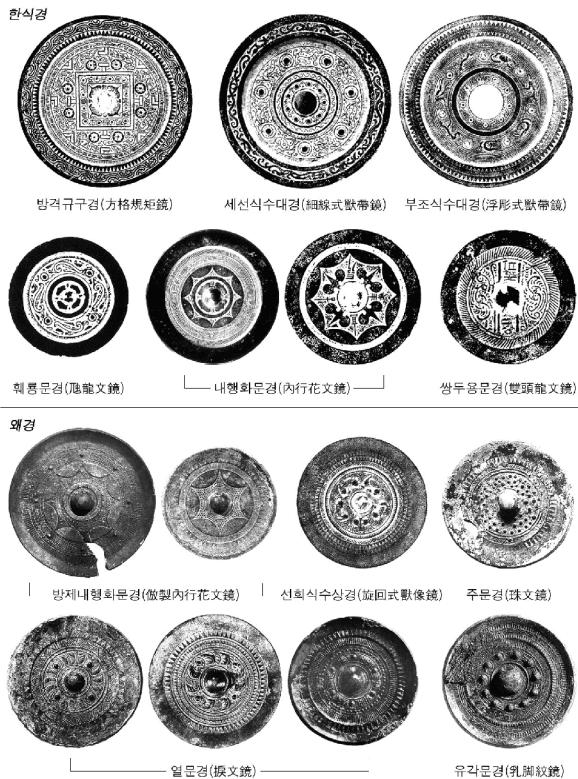
중 한대(漢代)에 성립된 경식을 지칭할 때는 일반적으로 한경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한대에 성립된 경식 중 몇몇은 한이 멸망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통 및 부상되는데 이는 삼국경 및 육조경(車崎正彥 編 2002; 이양수 2021b), 삼국·서진경 및 남북조경(上野祥史 2019)과 같이 지칭되고 있다. 다만 이처럼 분류할 경우 해당 동경의 제작연대와 관련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선행연구의 분류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나 본고에서는 동경이 지난 의미에 집중하고자 한의 멸망 이후에도 한식의 동경이 간략화·도식화된 형태로 명맥을 잇는다는 점에 주목하도록 한다. 이에 ‘한대에 성립되었으나 한의 멸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확인되는 한식의 동경’을 아울러 지칭하기 위해 한식경(漢式鏡)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한식경과 왜경의 경식은 아래의 [도면 1]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여기서는 한식경과 왜경 순으로 간략하게 용어를 정리해둔다.

방격규구경은 중앙의 방격(方格) 구획, 주문양대의 T, L, V문(規矩)이 특징이다. 일본에서는 방격규구사신경, 방격규구조문경 등 방격규구 이외의 문양구성을 기준으로 지칭하며 중국에서는 주로 규구경으로 지칭되다 최근에는 대부분 박국경(博局鏡)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방격규구경의 문양 성립에 육박(六博)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다는 견해(周錚 1987)는 필자도 동의 하지만 본고에서는 문양 구성에 집중하고 과도한 세분을 피하고자 방격규구경으로 통칭한다.

수대경은 내구의 소유(小乳)와 그 사이에 위치하는 사신·서수 등 주문양을 특징으로 한다. 주문양의 표현 방식에



[도면 1] 한식경, 왜경의 분류

서 세선식수대경과 부조식수대경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樋口隆康 1979; 南健太郎 2019). 방격규구경과 수대경은 내구 주문양과 외구문양에서 공유하는 속성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岡村秀典 1984, 1993).

훼룡문경은 내구 주문양에 4개의 소유과 그 사이의 역‘S’자형 훠룡문을 특징으로 한다. 외구문양은 소문(素文), 주문양은 훠룡문으로 강한 통일성을 가진다. 이 경식은 한국과 일본에서는 주로 독립된 계열로 이해하는 것이 보통이나 중국의 경우 훠룡문경을 독립적인 계열로 보기보다는 사유금수문경(四乳禽獸文鏡) 내 하나의 형식으로 보고 수대경의 연장선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程林泉·韩国河 2002; 孔祥星·劉一曼(安京淑譯) 2003).

내행화문경은 중앙의 뉴좌 바깥을 도는 내행화문(內行花文; 連弧文)이 특징이다. 내행화문의 바깥 내구외주(內區外周)는 사각선문(斜角線文)이나 평행선문(平行線文)과 원문 등으로 이루어지는 운뢰문(雲雷文)이 충전된 것, 요대(凹帶)로 이루어진 것으로 대별된다.

쌍두용문경은 뉴의 좌우로 들어가는 쌍두용문을 특징으로 하며 뉴의 상하로는 직행(直行)하는 명문대를 갖기도 한다. 명문대가 들어가는 경우 ‘위지삼공(位至三公)’, ‘장의자손(長宜子孫)’, ‘군의고관(君宜高官)’과 같은 4자구를 위아래 두 글자씩 넣는 것이 보통인데 이를 기준으로 ‘위지삼공경’ 등으로 지칭되기도 한다. 하지만 다른 경식에서도 4자구의 명문이 들어가는 사례는 많으며 이들도 경우에 따라 위지삼공경으로 지칭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해당 경식의 형태적 특징을 반영하면서 다른 경식과의 혼동 가능성을 줄이고자 쌍두용문경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방제내행화문경은 중국에서 일본열도로 유입된 내행화문경을 모방하여 제작한 것이다(田中琢 1981: 48). 명칭으로는 내행화문경(森下章司 1991, 2002), 방제내행화문경(清水康二 1994), 내행화문왜경(田中琢 1981), 왜제내행화문경 등 다양한 명칭이 혼용되고 있다. 내행화문경 중에는 한식의 내행화문경과 구별할 수 없을 만큼 유사한 동경도 포함된다. 다만 한식경과 왜경의 분류를 위해 한식경 내 해당 경식을 내행화문경, 왜경 내 해당 경식을 방제내행화문경으로 지칭하도록 한다. 방제내행화문경은 직경, 뉴좌와 운뢰문대의 형태 등에서 몇 가지 소계열로 분류된다(森下章司 2002; 清水康二 1994).

선회식수상경은 동일한 방향을 바라보는 수상(獸像) 몇 개가 주문양으로 채택된 것으로 수상의 사이에는 신상(神像)을 배치한 사례도 있다. 수형경(獸形鏡, 樋口隆康

1979), 변형육수경(變形六獸鏡, 복천박물관 2009)으로 지칭되기도 한다. 수상과 신상의 표현, 단면형태 등에서 분류할 수 있다(加藤一朗 2014; 岩本崇 2018).

열문경은 줄이 꼬인 형태의 문양이 주문양을 이룬다. 하나의 도상을 공유하는 경식이 아니라 타룡경(鼉龍鏡)의 각기 다른 원(原) 도상을 추출하여 창출된 몇 가지 소계열로 이루어진 경식으로 이해되는 것이 보통이다(小林三郎 1983; 森下章司 1991; 水野敏典 1997; 下垣仁志 2003).

주문경은 내구 주문양이 주문(珠文)으로 이루어진다. 다른 왜경에 비해 주문양이 간단하여 그 분류는 대동소이한데 외구·내구외주의 문양구성을 기준으로도 분류된다(森下章司 1991; 脇山佳奈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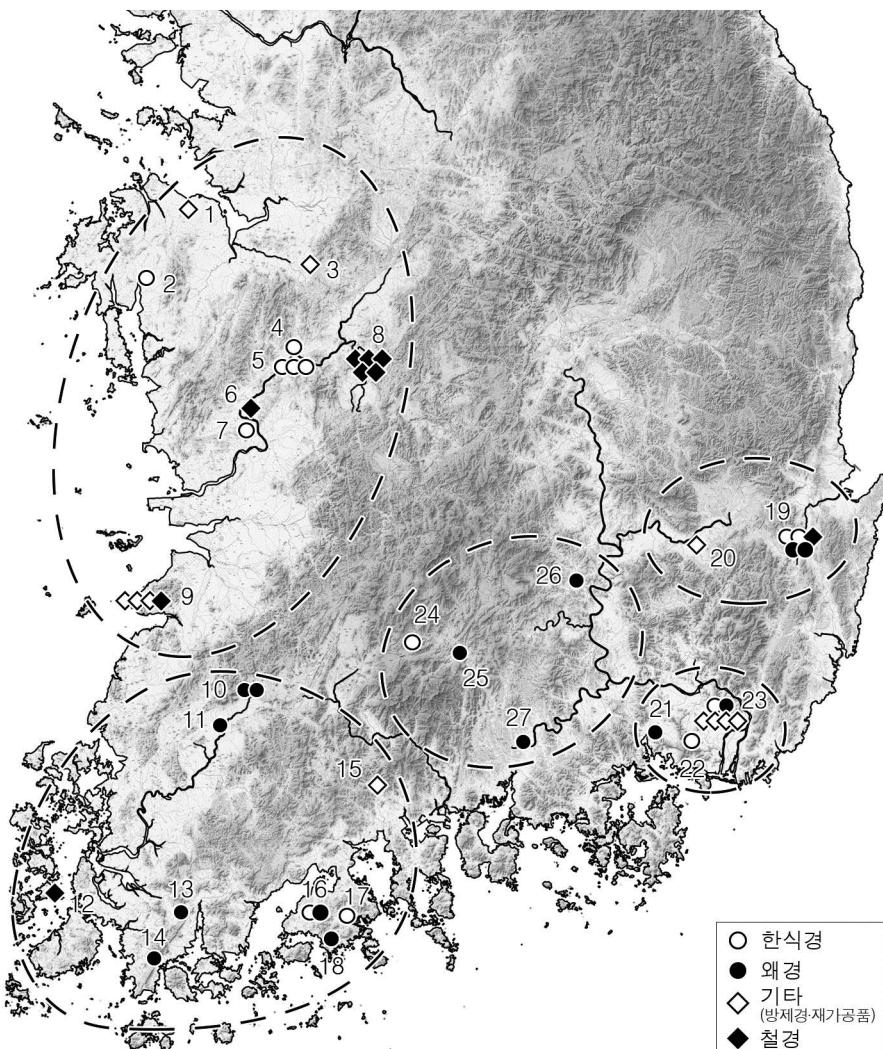
유각문경은 소유와 소유를 감싸는 다양한 선문(線文)이 주문양을 이룬다. 소유는 반구형(半球形), 원추형(圓錐形), 점형(點形)이 있으며 소유의 주위 선문은 ‘Q’형태의 문양, 퀄수형(蕨手形), 당초형(唐草形), 동심원형(同心圓形)이 있다. 주문양을 기준으로 몇 가지 소계열로 분류된다(森下章司 1991; 加藤一朗 2017).

방제경(倣製鏡)의 용어에 대해서는 원삼국시대의 소형방제경을 대상으로 용어의 적절성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시도(이양수 2021a)가 제출된 바 있다. 삼국시대의 방제경에 대해서는 그다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여기서는 일단 방제경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한다. 또한 모방의 대상이 된 원경(原鏡)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추정 원경을 함께 서술하도록 한다.

III. 권역별 동경 출토양상

먼저 논의 대상 지역이 한반도 남부 전체를 아우르는 만큼 이를 최소한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 지역과 정치체마다 동경이 지녔던 의미가 달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따라서 수계와 지형, 정치체를 고려하여 한반도 남부 전체를 크게 5개의 권역으로 구분한다. 권역의 구분은 ① 백제 중앙 및 중서부지역, ② 영산강유역 및 남해안지역, ③ 신라 권역, ④ 금관가야 권역, ⑤ 기타 가야권역으로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 도굴, 경작 등으로 유구가 조영 당시의 정황을 잃지 않았다면 동경의 출토양상은 동경을 부장, 매납·폐기한 당시의 정황을 담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 백제 중앙 및 중서부지역

1 당진 채운리 7호묘 / 2 서산 기지리 Ⅱ-21호묘 / 3 천안 화성리 B-2호묘 / 4 공주 공산성 4호 수혈 / 5 공주 무령왕릉 / 6 부여 화지산 '라' 건물지 8 / 7 부여 하황리 고분 수습품 / 8 대전 석봉동 유적 제사유구 / 9 부안 죽막동 제사유적

▶ 영산강유역 및 남해안지역

10 담양 제월리 고분 / 11 광주 쌍암동 고분 / 12 신안 배널리 3호분 / 13 해남 만의총 1호분 / 14 해남 월송리 조산고분 / 15 순천 운평리 8호묘 / 16 고흥 야마고분 / 17 고흥 길두리 안동고분 / 18 고흥 봉룡리 신고품

▶ 신라 권역

19 경주 황남대총 남분(○), 서봉총(○), 황남대총 북분(◆), 금령총(●), 황남리 고분(●) / 20 경산 임당 D-Ⅱ-117호묘

▶ 금관가야 권리

21 창원 삼동동 18호 응관묘 / 22 김해 양동리 441호묘 / 23 대성동 2(◇◇)-14(◇)-23(○)-70(◇)-108(●)호묘

▶ 기타 가야 권리

24 남원 두락리 32호분 / 25 산청 생초 9호묘 / 26 고령 지산동 45-1호분 / 27 진주 중안동 고분

[도면 2] 삼국시대 한반도 동경 분포(傳 출토품 제외)

권역별로 동경의 출토양상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적으로 살펴며 도굴, 경작 등으로 정황이 일부 파괴된 사례라고 하더라도부장, 매납·폐기 당시의 정황을 유추할 수 있다면 논의에 포함한다. 아울러 동경의 수량이 많지 않기에 그와 유사한 의미, 성격을 지녔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철경(鐵鏡) 또한 참고자료로써 함께 다루도록 한다.

1. 백제 중앙 및 중서부지역

백제 중앙 및 중서부지역에서는 총 18점의 자료가 확인되었다. 이 중 부여 하황리 고분 수습품(洪思俊 1995; 이솔언 2021)을 제외한 17점의 출토양상을 참고할 수 있다. 우선 고분에서의 부장양상을 살펴본 후 제사유구 등에서의 매납·폐기양상을 확인한다.

[표 1] 백제 중앙 및 중서부지역 동경·철경 현황 (○ : 한식경, ● : 왜경, ◇ : 기타(방제경), ◆ : 철경)

연번	지역	유구	경식		직경 (cm)	구분	부장연대 ²⁾
			분류	명칭			
1	당진	채운리 7호묘	◇	방제경	4.2	부장	4C 중엽~후엽
2	서산	기지리 Ⅱ-21호묘	○	훼륭문경	7.9	부장	4C 전엽~중엽
3	천안	화성리 B-2호묘	◇	방제경	4.3	부장	4C 중엽~5C 전엽
4	공주	무령왕릉	○	방격규구경	17.9	부장	AD525 / AD529
5			○	부조식수대경	23.3	부장	
6			○	세선식수대경	18.2	부장	
7	부여	공산성 4호 수혈	○	훼륭문경	9.9	매납	백제 응진기
8		하황리 고분 수습품	○	방격규구경	9.4	부장	백제 사비기
9		화지산 '리' 건물지8	◆	철경	14.3	매납?	백제 사비기?
10	대전	석봉동유적 제사유구	◆	철경	13.6	매납	4C 후엽~5C 중엽
11			◆	철경	13.2	매납	
12			◆	철경	13.4	매납	
13			◆	철경	13.7	매납	
14			◆	철경	13.4	매납	
15	부안	죽막동 제사유적	◇	방제경(상두)	8.7	폐기?	5C 중엽~6C 중엽
16			◇	방제경	8.3	매납	5C 후엽~6C 전엽
17			◇	불명	(2.6)	폐기?	삼국시대?
18			◆	철경	16.5	폐기?	삼국시대?

2) 동경은 제작·사용·부장의 과정을 거쳐 현재의 삼국시대 유구에서 출토되고 있다. 이에 동경의 연대에는 해당 동경이 제작된 연대와 부장된 연대가 포함된다. 동경이 다량 제작 및 부장된 한~서진대의 중국 중원지역과 고분 시대 일본열도의 경우에도 제작된 연대와 부장된 연대에 격차가 있는 사례가 확인된다(上野祥史 2013: 28; 土田純子 2012: 117~118; 南健太郎 2019: 36). 따라서 특히 동경을 살피 때에는 제작된 연대와 부장된 연대를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동경의 부장연대만을 논의하도록 한다.

당진 체운리 7호묘(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08)는 장축 방향이 북서-남동인 목관묘이다. 서단벽 인근에서 단경호 1점과 그 남동쪽의 구슬류가 확인되었고 북장 벽 인근에서는 철도자가 1점 확인되었다. 동경은 구슬군의 남동쪽에서 확인되었고 직경 4.2cm의 방제경이다. 구슬을 피장자 두부와 상반신, 철도자를 피장자 허리 부근에 부장한 것으로 간주하면 방제경은 피장자 두부 인근에 부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산 기지리 Ⅱ-21호묘(公州大學校博物館 2009)는 장축 방향이 동-서인 목관묘이다. 목관의 서단벽에서 단경호 1점이, 동단벽에서 철정 1점과 그 부근에서 관옥과 수정옥이 흩어져 출토되었다. 그 사이인 목관 중앙의 남장벽 인근에서 청동환, 청동 방울과 함께 직경 7.9cm의 훠룡문경³⁾이 출토되었다. 구슬류를 피장자 두부 인근에 부장한 것으로 간주하면 훠룡문경은 피장자 허리 인근에 부장하였다고 볼 수 있다.

천안 화성리 B-2호묘(國立公州博物館 1991)는 장축 방향이 북서-남동인 목관묘이다. 목관 밖 북서쪽에서 동체부, 저부만 남아있는 호가 2점, 목관 내 남동쪽에서 유리옥, 마노옥, 수정옥 등 구슬류가 확인되었다. 남장벽의 안쪽에서 직경 4.3cm의 방제 경이 배면을 위로 하여 포흔(布痕)을 뚜렷하게 남긴 채 확인되었다. 구슬류를 피장자 두부 인근에 부장하였다고 본다면 방제경은 피장자 허리 인근에 직물에 쌈 채 부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무령왕릉(文化財管理局 編 1974; 국립공주박물관 2009, 2021)에서는 3점의 동경이 출토되었다. 직경 17.9cm의 방격규구경은 왕의 족좌 부근에서 확인되었는데 주변에 나무 상자의 흔적인 확인되어 목함에 넣은 채 부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직경 23.3 cm의 부조식수대경은 왕의 머리 부근 두침 옆에서 확인되었다. 왕의 머리와 다리 인근에 각 1점의 동경을 부장한 것이 된다. 직경 18.2cm의 세선식수대경은 왕비의 관식 밑에서 확인되었다. 청동제 다리미가 왕비의 다리 인근에서 확인된 점에서 왕의 동경 부장양상과 유사하게 청동제 다리미와 세선식수대경을 연결짓기도 한다(韓茗 2020: 72~76).

공주 공산성 4호 수혈(公州師範大學博物館 1987)은 장축 1.1m, 단축 0.9m, 깊이 1.76m의 장방형 수혈이다. 바닥으로부터 10cm 위에서 직경 9.9cm의 훠룡문경과 토제 방추차 1점, 백제토기편이 확인되었으며 바닥으로부터 80cm 위에서는 다면옥 1점과 개(蓋) 2점이 확인되었다. 훠룡문경은 경면에 오이씨가 약 14개 붙어있었고 표면에 직물

3) 보고자는 이를 방제경으로 보았으나 최근에는 중국 삼국·서진경의 하나로 보는 견해(上野祥史 2019; 이양수 2021b)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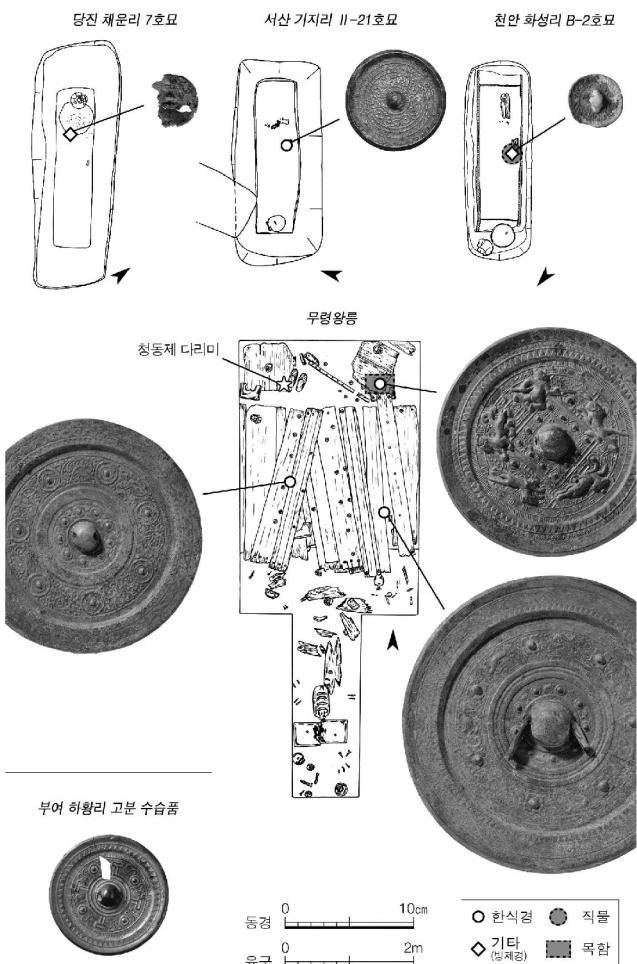
이 일부 남아있었다. 제의행위의 결과물로 직물에 쓴 채 매납했을 가능성이 크다.

매납연대와 관련하여 훠룡문경과 다면옥을 유관하게 보고 해당 토팡이 원삼국시대의 토팡목관묘와 백제시대 토팡이 중복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朴淳發 2001). 하지만 훠룡문경은 다면옥과 출토 위치에서 70cm의 차이가 있으며 오히려 타날이 이루어진 단경호편과 함께 출토되었기에 보고자의 견해를 따라 삼국시대의 유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부여 화지산 ‘라’지구 건물지 8(國立扶餘文化財研究所 2002)은 북벽 외곽과 3열의 배수구 시설로 이루어져 있다. 배구수 시설의 내·외곽을 중심으로 대부완, 호, 연가(煙家) 등 토키류와 철

경, 철제 자물쇠 등이 확인되었다. 철경의 직경은 14.3cm로 폐기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나 표면에 일부 유기물이 확인되어 직물에 쓴 채 매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전 석봉동유적 제사유구(금강문화유산연구원 2019)는 장축 방향이 동-서인 방형 수혈이다. 제사유구 내에서는 직경 13.1~13.7cm의 철경 5점과 시루로 추정되는 동체부 1점, 유개합 2점, 환두대도 2점이 확인되었다. 철경은 유구 중앙과 네 모서리에 1점씩 놓여 있었다. 보고자는 유물 중 가장 하단의 철경이 바닥보다 약간 위에서 확인된 점,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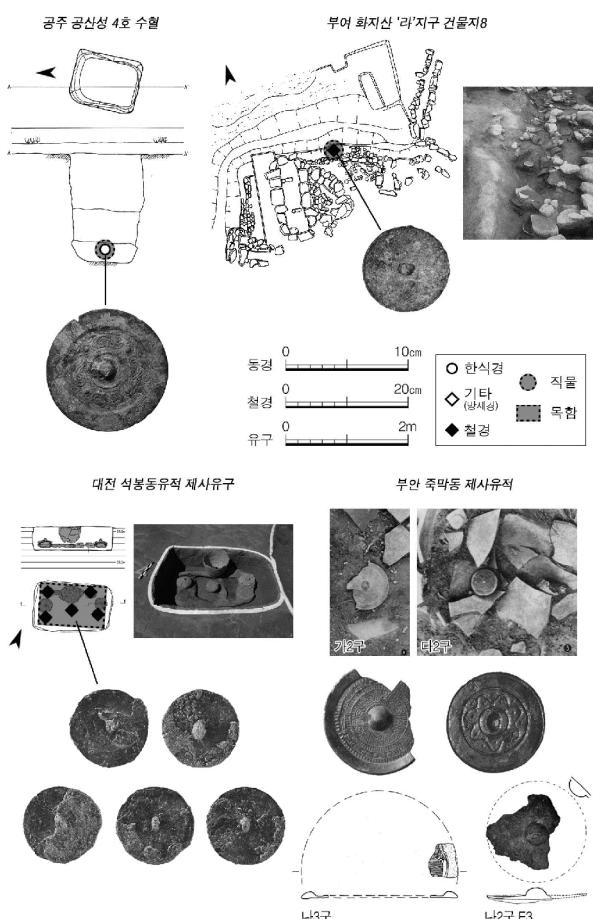


[도면 3] 백제 중앙 및 중서부지역 동경 부장양상

유물들이 유구 벽면과 일정한 간격을 둔 점에서 동체부 1점을 제외한 유물들을 소형 목곽이나 대나무 같은 유기물 함(函)에 넣어 매납한 것으로 보았다.

부안 죽막동 제사유적(國立全州博物館 1994)에서는 현재 남아있는 수성당 북쪽의 가2구 남동쪽 지점, 수성당 동쪽의 다2구 북단, 나3구의 북동쪽에서 동경이 1점씩 확인되었고 나2구의 E3에서 철경이 1점 확인되었다. 가2구에서 확인된 동경은 1/3 가량이 결실되었으며 직경은 8.7cm이다. 내구 주문양이 변형쌍두용문(이양수 2021b: 478)인 것에서 쌍두용문경의 방제경으로 볼 수 있다. 해당 동경은 토기편과 섞여 출토되었다. 다2구 북단에서는 직경 8.3cm의 방제경이 확인되었다. 동경은 D6, D7, E6, E7에서 확인된 기고 87.54cm, 동최대경 69.2cm의 옹 3 내부에서 철모 12점, 철검 2점, 검통형행엽 2점, 동령 1점, 교구 4점 등과 함께 확인되었다. 나3구에서 확인된 동경은 주연의 일부만 남아있으며 잔존 길이 약 2.6cm이다. 나2구에서 확인된 철경은 뉴를 중심으로 한 일부만 남아있으면 추정 직경은 16.5cm이다.

총 4점 중 다2구 북단에서 출토된 방제경은 제의의 일환으로 다른 금속유물과 함께 매납된 것으로 보인다. 다른 3점은 명확하지는 않으나 제의행위 이후 다른 기물과 함께 폐기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듯하다. 폐기에 대한 정황은 불분명한 부분이 많지만 가2구 출토 쌍두용문경의 방제경은 5세기 중엽~6세기 중엽의 양상(朴淳發 1998)을 보여주는 토기들과 함께 출토되었고, 나머지 동경·철경도 부안 죽막동 제사유적



[도면 4] 백제 중앙 및 중서부지역 동경·철경 매납·폐기양상

의 조성 및 제의행위 자체가 주로 삼국시대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삼국시대의 물품으로 추정할 수 있다.

총 18점 중 7점이 부장, 11점이 매납·폐기된 것이다. 고분에 부장된 것은 한식경이 4점, 방제경이 3점인데 한식경의 경우 출토양상을 확인할 수 없는 부여 하황리 고분의 사례를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무령왕릉 출토품이다. 앞서 살펴보았듯 피장자 를 사이에 두고 동경 2점, 혹은 동경과 다른 기물을 연계하여 부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⁴⁾ 방제경 3점은 당진 채운리 7호묘, 서산 기지리 Ⅱ-21호묘, 천안 화성리 B-2호묘 출토품으로 모두 피장자에 인접하여 부장하였는데 그 위치는 두부와 상반신 인근이다.

제사유구 등에 매납·폐기된 11점은 한식경 1점, 방제경 3점, 철경 7점이다. 제의의 일환으로 다른 기물과 함께 매납되거나 제의행위가 끝난 이후 폐기되는데 공반되는 기물의 종류로는 토기와 철기가 주를 이룬다.

부장위치의 차이를 검토하기에는 자료의 수가 부족하다. 또한 무령왕릉의 한식경 부장과 중서부지역의 방제경 부장 사례를 비교하기에도 무리가 있다. 다만 5세기대를 기점으로 그 이후의 백제 중앙에서 동경·철경의 종류에 따른 출토양상의 차이가 확인된다.

5세기대 이후 백제 중앙에서는 고분에 부장되는 것이 한식경에 한정된다. 방제경, 철경은 부장품으로 확인되지 않고 모두 제사유구 등에 매납·폐기된 사례에 해당한다. 함께 제의행위에 이용되었다는 점에서 철경은 동경과 유사한 의미를 지녔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백제 중앙과 왜 사이에 긴밀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에도 현재까지 백제 중앙에서 왜경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이는 후술하겠으나 마찬 가지로 왜와 긴밀한 교류가 이루어졌던 영산강유역 및 남해안지역, 기타 가야 권역에서 왜경이 다량 확인되는 점과는 상당히 대조적이다.

2. 영산강유역 및 남해안지역

영산강유역 및 남해안지역에서는 총 11점의 자료가 확인되었다. 모두 고분 부장 품인데 해남 월송리 조산고분(國立光州博物館 1984) 출토품과 고흥 봉룡리 신고품

4) 다만, 목함에 넣은 채 부장한 방격규구경과 나머지 동경을 동일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표 2] 영산강유역 및 남해안지역 동경·철경 현황 (○ : 한식경, ● : 왜경, ◇ : 기타(방제경), ◆ : 철경)

연번	지역	유구	경식		직경 (cm)	구분	부장연대
			분류	명칭			
1	담양	제월리 고분	●	선회식수상경	11.3	부장	6C 전엽~중엽
2			●	주문경	9.0	부장	
3	광주	쌍암동 고분	●	주문경	7.5	부장	5C 후엽~6C 전엽
4	신안	배널리 3호분	◆	철경	14.0	부장	5C 전엽
5	해남	만의총 1호분	●	선회식수상경	14.7	부장	5C 후엽~6C 전엽
6		월송리 조산고분	●	주문경	7.1	부장	5C 후엽~6C 전엽
7	순천	운평리 8호묘	◇	방제경	4.8	부장	4C 후엽
8	고흥	야막고분	○	쌍두용문경	10.1	부장	5C 전엽~중엽
9			●	무문경	6.8	부장	
10		길두리 안동고분	○	내행화문경	11.2	부장	5C 중엽
11		봉룡리 신고품	●	선회식수상경	13.9	부장	5C 후엽

을 제외하고는 모두 출토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담양 제월리 고분(金元龍 1964; 崔夢龍 1976; 조진선 · 강은주 2020)은 장축 방향이 북서-남동인 석실이다. 왜경 2점이 석실 중앙에서 북벽에 가깝게 서로 거리를 둔 채 확인되었다. 한 점은 직경 11.3cm의 선회식수상경이며 다른 한 점은 직경 9.0cm의 주문경이다. 마찬가지로 석실 중앙에서 약간 떨어진 채 확인된 이식의 바깥쪽으로 동경이 1점씩 확인된 것에서 피장자 두부 양쪽에 동경을 1점씩 부장한 것으로 보인다(崔夢龍 1976).

광주 쌍암동 고분(全南大學校博物館 1994)은 장축 방향이 북서-남동인 석실이다. 남벽의 동쪽에서 대도와 칠갑, 마구 등 철기가, 서쪽에서 기대와 원저꽝구호, 유공꽝구소호 등 토기가 집중적으로 확인되었고 직경 7.5cm의 주문경은 그 중간 정도의 위치에서 단독으로 확인되었다. 출토 위치를 고려하면 주문경을 의도적으로 다른 부장품과 구분하여 피장자 인근에 부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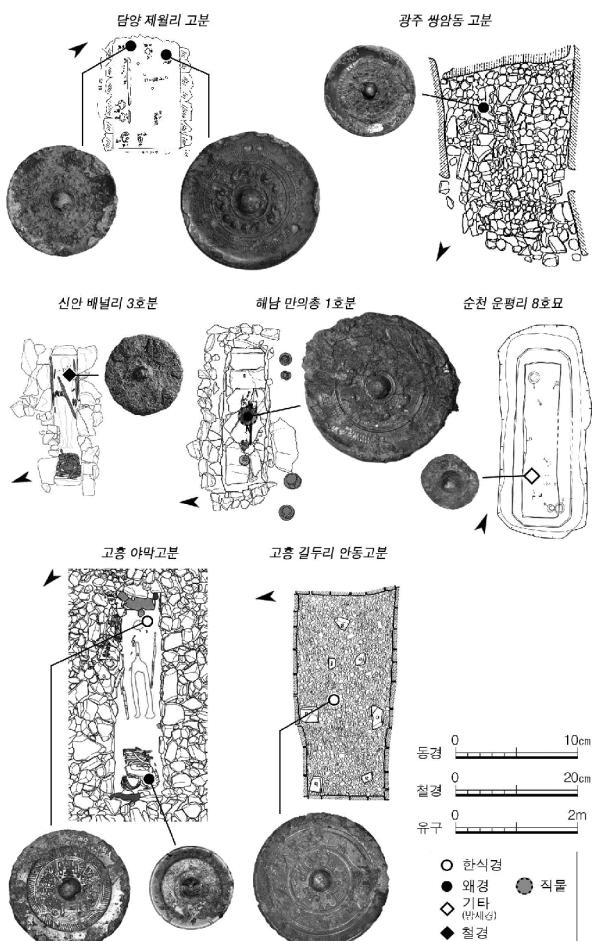
신안 배널리 3호분(동신대학교문화박물관 2015)은 장축 방향이 동-서인 수헬식 석곽묘이다. 피장자의 두향은 동쪽으로 유물은 피장자 상반신인 석곽 동쪽, 피장자 발치 아래인 서단벽에서 집중적으로 확인되었다. 서단벽에서는 갑주와 철부, 철모 등 무구류가 확인되었고 피장자 상반신 인근에서는 피장자를 중심으로 양쪽의 대도와 철검, 철도자, 철촉이 확인되었다. 직경 14.0cm의 철경은 피장자 상반신 어깨 인근에서 확인되었다.

해남 만의총 1호분(동신대학교문화박물관 2014)은 장축 방향이 동-서인 수헬식

석곽묘이다. 석곽 내 동쪽에 치우쳐 치아가 확인된 점, 철검의 병부가 동쪽으로 놓인 점에서 피장자의 두향은 동쪽으로 추정되었다. 직경 14.7cm의 선회식수상경은 석곽의 중앙에서 수 겹의 포목으로 감싼 채 확인되었다. 동경을 포목으로 감싸 피장자 허리 부근에 부장한 것으로 보인다.

순천 운평리 8호묘(順天大學校博物館 2010)는 내·외곽으로 이루어진 장축 방향 남-북의 소형 목곽묘이다. 북단벽과 남단벽에서 단경호와 광구소호가 1점씩 확인되었고 내곽 중앙 바닥에서는 구슬류가 흩어진 채 확인되었다. 묘곽 중앙의 남쪽에 가까운 곳에서 직경 4.5~4.8cm의 방제경이 확인되었다. 보고자는 피장자의 두향을 남쪽으로 보았는데 경식의 경우 목곽 내 여러 곳에서 흩어져 있었기에 방제경의 출토 위치가 근거가 된 듯하다. 다만 피장자의 두향은 차치하더라도 방제경은 피장자 인근에 부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흥 야막고분(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14)은 장축 방향이 북서-남동인 수혈식석곽묘로 2점의 동경이 출토되었다. 한 점은 직경 10.1cm의 쌍두용문경이며 다른 한 점은 직경 6.8cm의 무문경으로 전형적인 왜경의 무문경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辻田淳一郎 2018). 피장자의 두향은 남동쪽으로 유물은 석곽 내부 피장자 상반신 인근, 피장자 발치의 부장공간, 석곽 벽석 사이, 석곽 벽석 상면에서 확인되었다. 쌍두용문경은 피장자 두부와 가까운 곳에서 확인되었고 무문경은 피장자 발치



[도면 5] 영산강유역 및 남해안지역 동경·철경 부장양상

부장공간의 총각부주 내부에서 확인되었다. 쌍두용문경을 피장자 두부 인근에, 무문경을 피장자 발치 부장공간 내부에 부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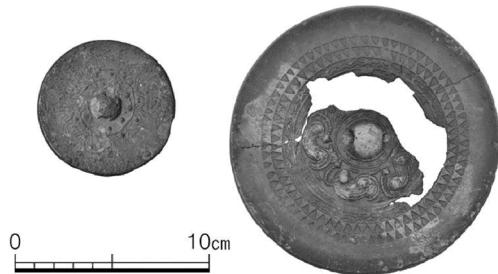
고흥 길두리 안동고분(全南大學校博物館 2015)은 장축 방향이 동-서인 석실이다. 석실 양 단벽으로 유물이 집중되는데 양 장벽 가까이에도 약간의 유물이 확인되었다. 석곽의 중앙에서는 11.2cm의 내행화문경과 금동제 이식, 철도 1점이 확인되었다. 내행화문경은 바닥으로부터

10cm 가량 뜯 채 출토되었는데 보고자는 원래 목관 내부에 부장된 것이 목관이 부식되어 넘어지거나 이동한 결과로 보았다. 철도의 병부가 동쪽인 점에서 피장자의 두향을 동쪽으로 간주하면 내행화문경은 피장자 허리 부근에 부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흥 봉룡리 신고품은 대도 1점, 유공광구소호 1점, 직구호 1점, 직경 13.9cm의 선회식수상경 1점이다.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봉룡리 1479-5번지에서 사무실(전원주택자재창고) 부지의 평탄화를 위한 굴삭기 작업 중 발견되어 신고된 것이다. 현장에서 다량의 석재가 확인되어 석곽묘일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지만 자세한 정황은 불명이다.

총 11점 중 한식경이 2점, 왜경이 7점, 방제경이 1점, 철경이 1점이다. 모두 고분 부장품으로 부장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7기 고분 출토 9점을 살펴보면 피장자 인근에 부장한 사례가 6점인데 부장위치는 모두 두부와 상반신 인근이다. 나머지 3점 중 하나는 고흥 야막고분의 무문경으로 공반된 쌍두용문경이 피장자 두부 인근에 부장된 것과 달리 피장자 발치 부장공간의 총각부주 내부에 넣은 채 부장하였다. 2점은 담양 제월리 고분에서 확인된 것으로 동경을 피장자 두부 양옆에 1점씩 부장하였다.

영산강유역 및 남해안지역은 마한으로 칭하는 여러 집단이 병존했던 권역이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동경이 피장자 신체 가까이 특히 두부와 상반신 정도에 부장된 점에서 거울을 부장하는 것에 유사한 의식이 존재했던 듯하다. 세부적인 부장위치는 종류별로 정리되지 않아 각 집단 혹은 지역사회마다 동경·철경을 부장하는 방법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흥 야막고분에서 2점의 동경을 의도적으로 서로 다른 위치에 부장한 것이 주목할 만하다. 신안 배널리 3호분에서 출토된 철



[도면 6] 해남 월송리 조산고분 출토품(左), 고흥 봉룡리 신고품(右)

경은 대부분의 동경 부장양상과 유사하게 피장자 상반신 인근에 부장되어 동경과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신라 권역

신라 권역에서는 총 6점의 자료가 확인되었다.⁵⁾ 신라 중앙의 경우 경주 내에서 황남리 고분(朝鮮總督府 1932)과 서봉총(국립중앙박물관 2014, 2020)을 제외한 3점의 부장양상을 비교할 수 있다.

경주 황남대총 남분(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1993, 1994)은 발굴조사 과정에서 봉토, 적석부, 주곽, 부곽에서 다량의 부장품이 확인되었다. 주곽에서는 다시 목곽상부, 석단 상면, 목관 내 피장자 인근, 부장품수장부로 부장위치를 세분할 수 있다. 주곽 인근 적석이 함몰된 부분에서는 장경호와 개배, 고배 등 토기류, 수하식, 경식, 지환 등 장신구류가 확인되었는데 보고자는 이를 목곽 상부에 배치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내곽과 외곽 측벽 사이 잔자갈층에서 청동제다리미 2점이 확인되었는데 직경 15.5cm의 방격규구경이 그 가까이에서 대파된 채 직물흔과 함께 확인되었다. 방격규구경을 마직(麻織)의 천으로 감싸 목곽 상부에 부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황남대총 북분(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1985;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21)의 발굴조사 과정에서도 봉토, 적석부, 목관에서 수많은 부장품이 확인되었다. 목관 내 출토유물은 목관 주위, 내관, 부장품수장부, 철(凸)자형 공간으로 부장위치를 분류할 수 있다. 보고자는 유물의 부장위치나 종류에서 외관 내 부장품수장부와 철자형 공간의 유물은 동일한 성격이었던 것으로 보았다. 철자형 공간의 남쪽에서는 대형 기대에 유개고배가 7점씩 담긴 세트가 2조 확인되었다. 이 세트가 맞닿은 부분의 상단에서 직경 14.5cm의 철경이 확인되었다. 철경의 곳곳에 직물이 수착되어 천으로 감싸 부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금령총(朝鮮總督府 1932)은 일제강점기에 조사되어 조선총독부의 보고서가 간행되어 있다. 직경 7.0cm의 주문경이 피장자 두부 상단의 부장품수장부에서 확인되었다. 보고서에서는 부장품수장부의 부장품을 하층, 중층, 상층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이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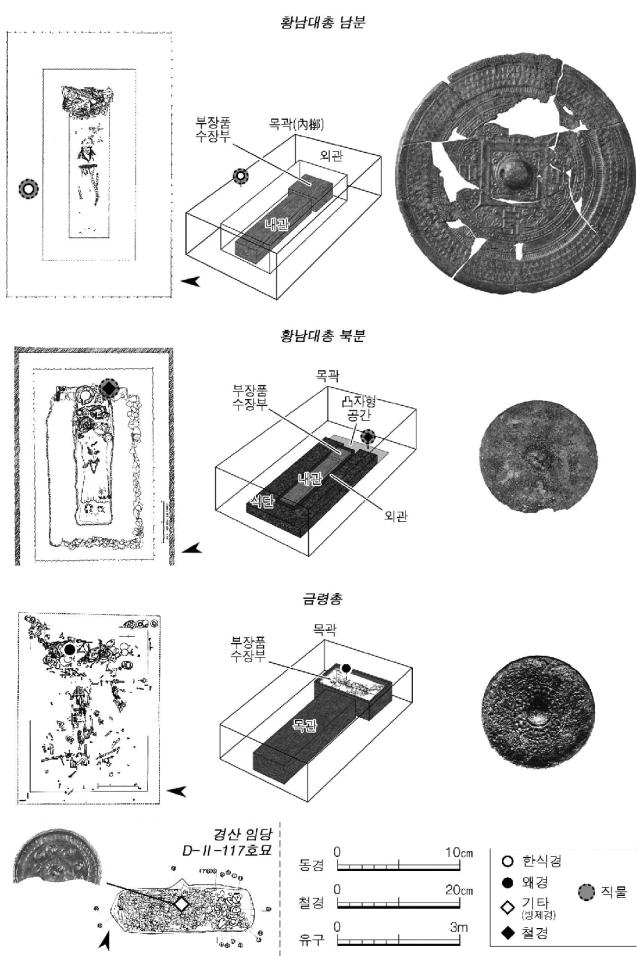
5) 이외 국은 수집품으로 傳 경주 교동 출토 쟁두용문경, 傳 경산 임당 출토 주문경이 있으나 출토양상과 부장 혹은 매납 · 폐기 연대를 확인할 수 없어 크게 다루지는 않도록 한다(國立慶州博物館 2007).

[표 3] 신라 권역 동경·철경 현황 (○ : 한식경, ● : 왜경, ◇ : 기타(방제경), ◆ : 철경)

연번	지역	유구	경식		직경 (cm)	구분	부장연대
			분류	명칭			
1	경주	황남대총 남분	○	방격규경	15.5	부장	5C 후엽
2		황남대총 북분	◆	철경	14.5	부장	5C 후엽
3		금령총	●	주문경	7.0	부장	6C 전엽
4		서봉총	○	부조식수대경	(3.3)	부장	6C 전엽
5		황남리 고분	●	열문경	8.0	부장	4C 중엽~후엽 이후?
6	경산	임당 D-II-117호묘	◇	소형방제경	5.5	부장	6C 전엽
-	기타	傳 경주 교동	○	쌍두용문경	9.0	-	-
-	기타	傳 경산 임당	●	주문경	7.6	-	-

상층의 동북쪽에는 거리가 약간 떨어진 체 안교(鞍橋)의 전·후륜이 확인되었고 한쪽의 안륜(鞍輪) 인근에서 운주, 행엽, 마탁, 금동제 등자, 제갈 등 마구류가 확인되었다. 상층 중앙에서는 마구류와 가까운 곳에서 백화수피제 관모, 금동제 식리, 금은장 도자군, 대장식구 등 장신구류가 확인되었다. 이후 발견된 주문경도 이곳에서 확인되었다고 하는데 백화수피제 관모 사이에서 확인되었다고 전해진다.

경주 서봉총(국립중앙박물관 2014, 2020)은 일제강점기 조사 당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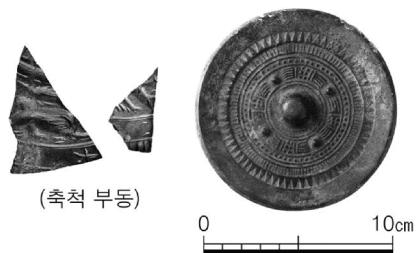
[도면 7] 신라 권역 동경·철경 부장양상

유물 출토양상에 대한 상세한 보고가 이루 어지지 않아 동경의 부장양상을 명확히 알 수 없다. 또한 연접한 데이비드총 출토 유물이 섞여들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다(국립중앙박물관 2014: 1). 다만 이를 서봉총 출토품으로 본다면 조사 관련 논고(국립중앙박물관 2014: 159~197)에 목관 내 피장자 인근 출토양상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었음에도 동경에 대한 기록은 없는 것에서 부장품수장부에서 파편으로 출토된 것이 아닐까 한다. 동경은 부조식수대 경의 편으로 2점이며 그중 큰 것의 잔존 길이는 3.3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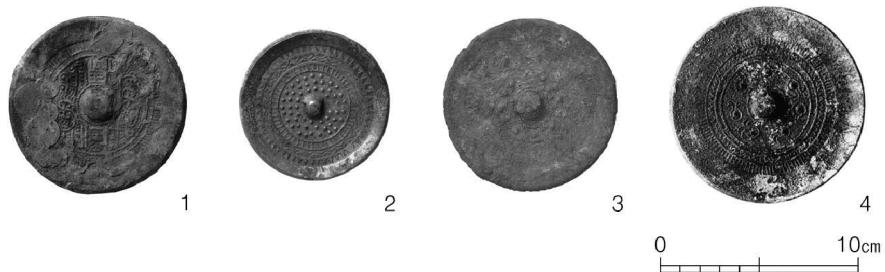
경산 임당 D-II-117호묘(韓國文化財保護財團 1998)는 장축 방향이 동-서인 목곽묘이다. 동단벽에 접하여 다량의 토기류가 확인되었고 서단벽에는 약간의 철기가 확인되었다. 목곽 중앙부에서 직경 5.52cm의 방제경이 확인되었는데 원삼국시대, 야요이시대에 주로 확인되는 것과 유사하다. 출토 위치를 감안하면 방제경을 피장자 허리 인근에 부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총 6점 중 한식경이 2점, 왜경이 2점, 방제경이 1점, 철경이 1점이다. 경산 임당 D-II-117호묘의 경우 특수한 사례로 판단되며 지역적인 차이도 있어 다른 사례들과 비교하기 곤란하다. 여기서는 월성북고분군을 중심으로 하는 신라 중앙을 논의해 보도록 한다.

신라 중앙에서 확인된 동경·철경 중 부장양상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황남대총 남분·북분, 금령총의 사례뿐이다. 3기의 고분에서만 확인된 사례이긴 하나 부장위치의 차이는 지적해둔다. 황남대총 북분의 철경과 금령총의 주문경은 동일하게



[도면 8] 경주 서봉총(左), 황남리 고분(右) 출토품



[그림 9] 주정 삼국시대 동경(傳 출토품)

(1. 傳 경주 교동 출토품, 2. 傳 경산 임당 출토품, 3. 傳 김해 양동리 출토품, 4. 傳 양산 출토품)

다른 부장품들과 함께 부장품이 주로 부장되는 공간에 부장하였으나 황남대총 남분의 방격규구경은 목곽 상부라는 별개의 위치에 부장하였다. 한식경(방격규구경)과 나머지(철경, 주문경)가 서로 다른 맥락에서 부장되었음을 반영한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부장양상이 유사한 것에서 철경은 동경과 유사한 의미를 지녔던 것으로 보인다.

4. 금관가야 권역

금관가야 권역에서는 총 8점의 자료가 확인되었다.⁶⁾ 모두 고분 부장품이며 대부분이 김해 양동리고분군, 대성동고분군에서 출토되었다. 이중 대성동 14호묘(慶星大學校博物館 2000)를 제외한 7점의 출토양상을 참고할 수 있다.

창원 삼동동 18호 응관묘(釜山女子大學校博物館 1984)는 두 개의 옹이 합구된 옹관묘로 북옹이 남옹의 구연부 안쪽으로 들어간 상태로 확인되었다. 남옹의 바닥에서 직경 6.1cm의 방제내행화문경 1점과 철도자 1점이 확인되었다.

김해 양동리 441호묘(東義大學校博物館 2021)는 장축 방향이 동-서인 이혈주부곽식의 목곽묘이다. 주곽의 서단벽과 북장벽·남장벽의 모서리에 토기류와 철기류, 구슬류가 확인되었다. 목곽의 중앙부에서는 소량의 철기류와 직경 9.4cm의 방격규구경이 확인되었다. 출토 위치를 생각하면 피장자 인근에 부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해 대성동 2호묘(慶星大學校博物館 2000)는 단독으로 조영된 목곽묘이다. 목곽 내부는 거의 전면적으로 도굴의 피해를 입어 원래의 부장양상을 크게 잃은 상태였다. 보고자는 잔존상태에서 유물의 부장위치를 추정하여 동단벽과 북장벽쪽으로 중소형 토기류가, 북장벽과 남장벽을 따라 무구류와 마구류가 부장된 것으로 보았다. 동경은 2점이 확인되었는데 모두 목곽 중앙 상면에서 3.5cm 내외의 소형편으로 볼 수 있지만 명확하지는 않다. 한 점은 세선식수대경의 편으로, 다른 한 점은 부조식수대경의 편으로 보인다. 출토 위치가 부장위치를 반영한다면 피장자 인근에 부장한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상세한 위치는 불명이다. 보고자는 본래 완형으로 부장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는데 이는 파경(破鏡)의 결과물로 보는 견해(上野祥史 2019)가 있다.

김해 대성동 23호묘(慶星大學校博物館 2000)는 단독으로 조영된 목곽묘이다. 2호묘와 마찬가지로 전면적인 도굴로 본래의 부장양상을 크게 잃은 상태였으며 역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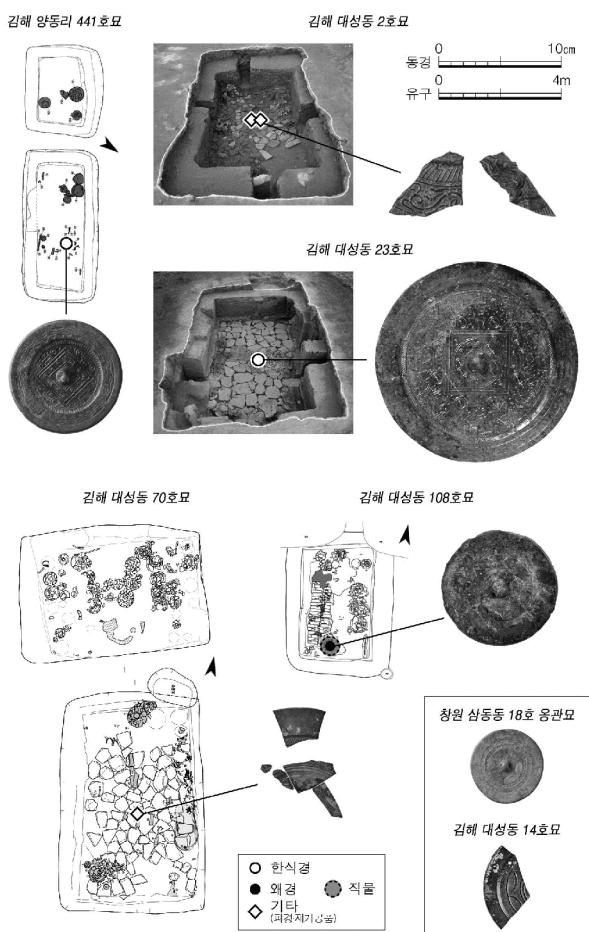
6) 이외 국은 수집품으로 傳 김해 양동리 출토 주문경, 傳 양산 출토 유각문경이 있으나 출토양상과 부장 혹은 매납·폐기 연대를 확인할 수 없어 크게 다루지는 않도록 한다(國立慶州博物館 2007).

[표 4] 금관가야 권역 동경 현황 (○ : 한식경, ● : 왜경, ◇ : 기타(파경 · 재가공품), ◆ : 철경)

연번	지역	유구	경식		직경 (cm)	구분	부장연대
			분류	명칭			
1	김해	삼동동 18호 응관묘	●	방제내행화문경	6.1	부장	4C 전엽?
2		양동리 441호묘	○	방격규구경	9.3	부장	4C 전엽
3		대성동 2호묘	◇	세선식수대경(破鏡?)	(3.5)	부장	4C 후엽
4			◇	부조식수대경(破鏡?)	(3.5)	부장	
5		대성동 14호묘	◇	내행화문경(재가공품)	(6.8)	부장	4C 이후
6		대성동 23호묘	○	방격규구경	16.6	부장	4C 후엽
7		대성동 70호묘	◇	내행화문경(破鏡?)	(21.0)	부장	4C 후엽
8		대성동 108호묘	●	방제내행화문경	9.5	부장	4C 전엽
-	기타	傳 김해 양동리	●	주문경	8.8	-	-
-	기타	傳 양산	●	유각문경	-	-	-

보고자는 잔존상태에서 본래의 부장양상을 추정하여 남장벽과 서단벽에 접하여 토기류를 부장하고, 동단벽에 접하여 무구류를 부장한 것으로 보았다. 목곽의 중앙에는 철정을 3겹으로 4줄 깐 것이 확인되었는데 도굴의 피해로 절반 이상이 파괴되었다. 직경 16.6cm의 방격규구경은 상면에 깔린 철정 위에서 확인되었는데 거의 정중앙에 해당하는 지점이다. 출토 위치가 부장위치를 반영한다면 피장자 인근에 부장한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상세한 위치는 불명이다.

김해 대성동 70호묘(대성동고분박물관 2015)는 이헬 주부과식의 목곽묘로 주곽의



[도면 10] 금관가야 권역 동경 출토양상
(대성동 2·23호묘 유구, 2·14호묘 출토품은 축척부동)

장축 방향은 남-북이다. 전면적으로 도굴의 피해를 입어 유물이 매우 적게 남은 턓에 부장양상을 정확히 알기 힘들다. 다만 목곽 중앙에서 철정 9점과 그 위로 쐐기, 꺾쇠가 확인되는 것에서 목곽 중앙에 목관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서단벽과 북단벽을 따라 토기류, 동장벽에서 무구류, 서장벽에서 농공구류가 확인되었으며 동경은 다른 유물들과 다르게 목곽 중앙에서 여러 점의 편으로 확인되었다. 동경은 추정 직경 21.0cm의 내행화문경이다. 출토 위치, 다른 유물과의 위치 관계를 고려하면 동경 혹은 동경편을 피장자 인근에 부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편들을 파경(破鏡)의 결과물로 보는 견해(上野祥史 2019)도 있다.

김해 대성동 108호묘(대성동고분박물관 2022)는 장축 방향 남-북의 목곽묘로 비교적 원래의 부장양상이 잘 남아있었다. 목곽의 서장벽에는 철정 40매가 2열로 깔려 시상이 마련되었고 그 동쪽에 접하여 회백색 점질토로 된 시상이 설치되었다. 철정의 상부에 주피장자의 것으로 보이는 인골편과 관속으로 이루어진 경식이 확인되어 주피장자의 두향은 남쪽으로 보인다. 철정의 남쪽은 목곽 남단벽과 맞닿으며 이 곳의 가장 아래에서 직경 9.5cm의 방제내행화문경이 확인되었고 배면과 경면 곳곳에는 직물흔이 남아있었다. 그 위로는 유기물흔과 함께 동완, 동촉, 통형동기 등 청동제품, 목함과 칠기 등 유기물이 확인되었다. 출토위치와 다른 유물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방제내행화문경은 주피장자 두부 상단의 부장공간에 다른 청동기물 및 유기물과 함께 부장한 것으로 보인다.

대성동 2·70호묘 출토 동경편을 파경의 결과물로 보는 上野祥史(2019)의 견해를 따르면 총 8점 중 한식경이 2점, 왜경이 2점, 파경 등 재가공품이 4점이다. 이중 김해 대성동 14호묘의 경우 동경에 대한 짧은 소개만 수록되어(慶星大學校博物館 2000: 164) 상세한 부장양상을 확인할 수는 없다. 또한 창원 삼동동 18호 옹관묘는 묘제와 지역에서 나머지 사례와 비교하기 다소 곤란한 감이 있다. 여기서는 김해 양동리고분군, 대성동고분군을 중심으로 금관가야 중앙의 사례만을 논의해보도록 한다.

금관가야 중앙에서는 총 6점의 부장양상을 참고할 수 있다. 한식경 2점과 한식경을 재가공한 3점은 모두 출토 위치에서 미루어보아 피장자 인근에 부장한 것으로 보이는데 두부에 가까운지 상반신에 가까운지는 불명이다. 왜경 1점은 김해 대성동 108호묘의 방제내행화문경으로 주피장자 두부 상단의 부장공간에 다른 청동기물 및 유기질 부장품들과 함께 부장하였다. 한식경과 한식경을 재가공한 제품, 왜경으로 부장위치의 차이가 확인된다.

5. 기타 가야 권역

기타 가야 권역에서는 총 4점의 자료가 확인되었으며 모두 고분 부장품이다. 이중 부장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고령 지산동 45-1호분(金鍾徹 1979), 진주 중안동 고분(朝鮮總督府 1916; 金度憲 2000)을 제외한 단 2점이다.

남원 두락리 32호분(全北大學校博物館 2015)은 주석과과 부장석과이 병렬로 설치되었다. 주석과의 장축 방향은 동-서로 피장자 두부와 발치의 양단벽을 중심으로 유물이 확인되었다. 피장자 두부 상단인 동단벽에서는 장경호, 철모와 철촉 다발 등이 확인되었고 발치인 서단벽에서는 장경호, 단경호, 개 등 토기류, 반구형 운주, 교구, 마구 부석구 등 마구류와 철검, 철부 등 농공구류가 확인되었다. 석과 중앙에서는 남서쪽에 가까운 곳에서 금동식리의 편이 확인되었고 중앙으로부터 북동쪽에 가까운 곳에서는 직경 17.45cm의 부조식수대경이 확인되었다. 보존처리 과정에서 두 겹의 섬유, 적색 안료 등이 확인되었고 보고자는 본래 목함(木函)에 부조식수대경을 넣어 부장하였던 것으로 추정하였다. 출토 위치만을 고려한다면 의도적으로 피장자의 유해 가까이에 부장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목함에 넣은 채 부장하였다는 점, 다른 유물의 부장이 양단벽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주요 부장품의 하나로 금동식리와 함께 다른 부장품들과는 구분하여 피장자와 가까운 공간에 별도로 부장하였다고 보는 편이 적절할 듯하다.

[표 5] 기타 가야 권역 동경 현황 (○ : 한식경, ● : 왜경, ◇ : 기타, ◆ : 철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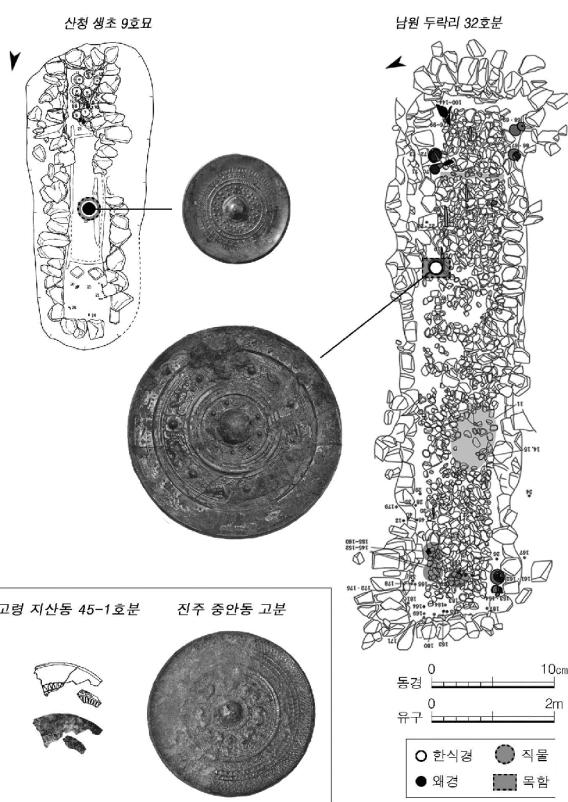
연번	지역	유구	경식		직경 (cm)	구분	부장연대
			분류	명칭			
1	남원	두락리 32호분	○	부조식수대경	17.5	부장	5C 후엽
2	산청	생초 9호묘	●	주문경	9.0	부장	6C 전엽
3	고령	지산동 45-1호분	●	불명(왜경?)	(5.8)	부장	6C 전엽
4	진주	중안동 고분	●	선회식수상경	13.8	부장	6C 전엽

산청 생초 9호묘(慶尙大學校博物館 2006, 2009)는 장축 방향이 남-북인 수혈식 석과묘이다. 중앙의 목관 내에서 피장자의 인골이 확인되었는데 이로 보아 두향은 남쪽으로 추정된다. 석과의 양 단벽을 중심으로 유물이 확인되었으며 남단벽에는 토기류, 북단벽에는 철기류가 중심적으로 확인되었다. 피장자 인근에서는 대도와 소도, 직경 9.0cm의 주문경이 확인되었다. 출토 위치에서 미루어보아 피장자의 상반신 위

에 부장된 것으로 보이며 경면과 배면 곳곳에 직물이 수착되어 직물로 감싸 부장한 것으로 보인다.

총 4점 중 한식경이 1점이며 왜경은 3점이다. 고령 지산동 45-1호분 출토 동경은 왜경의 주문경으로 보는 견해(上野祥史 2019)가 있어 왜경으로 분류해둔다. 이 중 출토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한식경과 왜경 각 1점뿐으로 부장위치 등을 비교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 고분을 축조한 집단이 모두 다를 가능성이 크며 동경 출토 고분이 가졌던 위계도 동일선에서 바라볼 수 없다. 다만

남원 두락리 32호분의 한식경은 부장품이 주로 부장되는 공간이 아닌 별도의 공간에 목함에 넣은 채 부장하였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도면 11] 기타 가야 권역 동경 부장양상

6. 동경 출토양상의 권역별 특징

권역별 동경 출토양상을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권역별 특징을 정리하며 두 가지를 지적해둔다. 첫 번째는 권역별로 동경·철경의 종류에서 양적·질적인 편차가 확인된다는 점이며, 두 번째는 권역마다 모두 다르나 동경·철경의 종류별 출토양상의 차이가 확인된다는 점이다.

먼저 권역별 양적·질적 편차는 [표 6]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백제 중앙 및 중서부 지역은 다른 권역에 비해 방제경과 철경이 다량 확인되며 앞서 지적하였듯 현재까지 왜경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영산강유역 및 남해안지역에서는 특

[표 6] 권역별 동경·철경 종류별 분포 (○ : 한식경, ● : 왜경, ◇ : 기타(방제경·파경·재가공품), ◆ : 철경)

권역	분류	동경			철경	계
		한식경	왜경	기타		
백	부장	○ ○ ○ ○	-	◇◇◇ (4세기대)	-	7
	매납·폐기	○	-	◇◇◇	◆◆◆◆◆ ◆◆	11
영	부장	○ ○	●●●● ●●	◇	◆	11
	매납·폐기	-	-	-	-	-
신	부장	○ ○	●●	◇	◆	6
	매납·폐기	-	-	-	-	-
금	부장	○ ○	●●	◇◇◇◇ (파경·재가공)	-	8
	매납·폐기	-	-	-	-	-
가	부장	○	●●●	-	-	4
	매납·폐기	-	-	-	-	-

히 왜경의 부장이 눈에 띈다. 신라 권역은 6점의 사례로 비교적 적은데 특정 종류에 편중되지 않고 고루 확인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경산 임당 D-II-117호묘 출토 방제경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경주 월성북고분군의 특정 고분으로 분포가 한정된다. 금관가야 권역은 창원 삼동동 18호 옹관묘 출토 방제내행화문경을 제외하면 모두 금관가야의 중심 고분군인 김해 양동리고분군, 대성동고분군에서 확인되었다. 유일하게 파경(上野祥史 2019) 등 재가공품이 확인되는 것이 특징적이다. 기타 가야 권역은 모든 권역 중 동경·철경의 수가 가장 적으나 영산강유역 및 남해안지역과 유사하게 왜경에 편중된다고 볼 수 있다.

추가로 권역별 동경·철경의 종류별 출토양상의 차이를 지적할 수 있다. 우선 지금까지 살펴본바 한반도 내에서 동경을 부장하는 유형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동경·철경을 피장자 인근에 부장한 것(ㄱ)이다. 두부에 두거나 그 가까이에 부장한 것, 상반신에 두거나 그 가까이에 부장한 것으로 세분할 수 있겠으나 일부는 그 상세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워 여기서는 세분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부장품이 주로 부장되는 공간에 다른 부장품들과 함께 부장한 것(ㄴ)이다. 세 번째는 여러 점의 동경 혹은 동경과 다른 기물로 피장자를 감싸듯 부장한 것(ㄷ)이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부장품이 중점적으로 부장되는 공간이 아닌 별도의 공간에 부장한 것(ㄹ)이다.

권역별 동경 출토양상을 정리한 것이 [표 7]이다. 직물에 감싼 것은 ‘織’, 목함에 넣은 것은 ‘函’, 투구에 넣은 것은 ‘胄’, 관모에 넣은 것은 ‘帽’로 별도 표기하였다. 종류별 출토양상의 차이를 권역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백제 중앙 및 중서부지역의 경우 방제경, 철경의 매납이 이루어지는데 현재까지는 모든 권역 중 유일하다.⁷⁾ 해당 권역에서는 이미 이른 시기부터 서울 풍납토성 출토 토제경, 하남 미사리 A-1호 주거지 출토 방제경, 춘천 중도동 A4구역 8호 주거지 출토 동경편과 같이 거울을 매납·폐기하는 사례가 확인된다. 이르게는 원삼국시대부터 이후 사비기에 이르기까지 거울을 제의행위의 일환으로 매납하거나 제의 이후 폐기하는 의식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5세기대 이후 백제 중앙을 한정하여 고분에 부장되는 것은 한식경에 한정된다. 방제경과 철경은 모두 제사유구 등에 매납·폐기된다. 다른 동경·철경의 출토양상이 종류에 따라 정리되는 것에서 왜경의 부재는 우연으로 보기는 힘들다.

영산강유역 및 남해안지역의 경우 종류에 따른 출토양상의 차이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앞서 언급하였듯 크게 마한으로 칭하는 여러 집단이 병존했던 권역이라 각 집단 혹은 지역사회마다 동경·철경을 부장하는 방법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던 듯하다. 다만 대부분의 동경·철경은 피장자와 가깝게 부장하는 것에서 유사한 의식이 공유되고 있었음을 지적할 수 있다. 고흥 야막고분의 경우 한식경과 왜경 두 종류의 동경을 의도적으로 서로 다른 위치에 부장하였다는 점은 다시 지적해둔다.

신라 권역에서 경산 임당 D-II-117호묘 출토 방제경의 경우 원삼국시대의 소형 방제경이 6세기 전엽의 유구에서 출토된 특수한 사례이며 지역적인 차이가 있어 다른 자료들과 비교하기는 곤란하다. 다만 월성복고분군을 중심으로 한 신라 중앙에서는 사례가 적긴 하나 한식경-왜경 및 철경으로 출토양상이 나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식경이 왜경 및 철경과는 다른 맥락에서 부장되었음을 반영한다고 생각한다.

금관가야 권역 중 특히 김해 양동리고분군, 대성동고분군에서는 한식경과 이를 재가공한 제품들이 모두 묘곽 상면 중앙 정도에 위치하여 피장자와 가깝게 부장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성동 108호묘의 방제내행화문경은 피장자 두부 상단에 다른 부장품들과 함께 부장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펜던트와 유사하게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대성동 14호묘 출토품을 제외하더라도 한식경과 그 재가공품(파경)은

7) 신라 권역에서도 황룡사지 목탑지, 분황사지에서 동경의 매납이 확인되나 현재까지 4~5세기대까지 소급시킬 수 있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자료의 증가는 기대해볼 만하다.

[표 7] 동경의 권역별 부장, 매납·폐기양상 비교 (○ : 한식경, ● : 왜경, ◇ : 기타(방제경·파경·재가공품), ◆ : 철경)

권역	지역	유구	경식	직경(cm)	부장유형				매납·폐기	비고
					ㄱ	ㄴ	ㄷ	ㄹ		
백	공주	무령왕릉	방격규구경	17.9		○				函
			부조식수대경	23.3		○				
			세선식수대경	18.2		○				
		공산성 4호 수혈	훼룡문경	9.9					○	
	부여	화지산 '라' 건물지 8	철경	14.3					◆	
	대전	석봉동유적 제사유구	철경	13.6					◆	函
			철경	13.2					◆	函
			철경	13.4					◆	函
			철경	13.7					◆	函
			철경	13.4					◆	函
	부안	죽막동 제사유적	방제경(쌍두)	8.7					◇	
			방제경	8.3					◇	
			불명	(2.6)					◇	
			철경	16.5					◆	
영	당진	채운리 7호묘	방제경	4.2	◇					
	서산	기지리 Ⅱ-21호묘	방제경(훼룡)	7.9	◇					
	천안	화성리 B-2호묘	방제경	4.3	◇					織
	담양	제월리 고분	선희식수상경	11.3					●	
			주문경	9.0					●	
	광주	상암동 고분	주문경	7.5	●					
	신안	배널리 3호분	철경	14.0	◆					
	해남	만의총 1호분	선희식수상경	14.7	●					織
고흥	순천	운평리 8호묘	방제경	4.8	◇					
	야막고분	쌍두용문경	10.1	○						
		무문경	6.8		◇					胄
		길두리 안동고분	내행화문경	11.2	○					
신	경주	황남대총 남분	방격규구경	15.5				○		織
		황남대총 북분	철경	14.5		◆				織
		금령총	주문경	7.0		●				帽
	경산	임당 D-Ⅱ-117호묘	소형방제경	5.5	◇					
금	김해	양동리 441호묘	방격규구경	9.3	○					
		대성동 2호묘	세선식수대경(破鏡?)	(3.5)	◇					
			부조식수대경(破鏡?)	(3.5)	◇					
		대성동 23호묘	방격규구경	16.6	○					
		대성동 70호묘	내행화문경(破鏡?)	(21.0)	◇					
		대성동 108호묘	방제내행화문경	9.5		●				織
가	남원	두락리 32호분	부조식수대경	17.5				○		函
	산청	생초 9호묘	주문경	9.0	●					織

왜경과 다른 맥락에서 부장되었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기타 가야 권역은 앞서 언급하였듯 출토양상을 비교할 수 있는 사례가 적다. 다만 남원 두락리 32호분의 한식경은 부장품이 주로 부장되는 공간이 아닌 별도의 공간에 목함에 넣은 채 부장하였다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IV. 삼국시대 동경 부장의 의미

삼국시대 사회에서 동경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지 추론해보도록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고대 동아시아 사회에서의 동경과 그 출토양상을 논의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고대 동아시아 사회에서 동경이 어떤 의미를 지녀왔었는지를 검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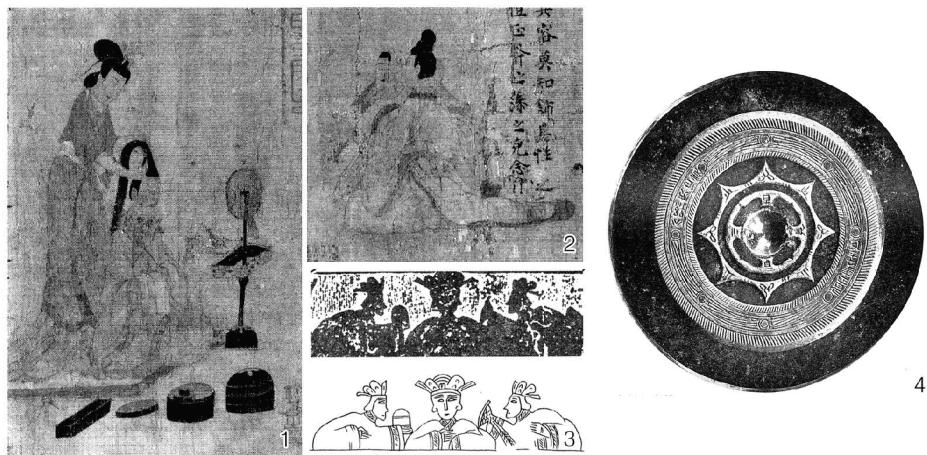
1. 고대 동아시아 사회에서의 동경

삼국시대 한반도 사회에서 동경이 지닌 의미를 유추하기 위해 1차적으로 다른 고대 동아시아 사회에서의 동경과 그 출토양상 등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한대(漢代) 중원 및 낙랑, 동진대 이후 남북조시대까지의 중국 대륙, 원삼국시대 한반도, 고분시대 일본열도를 살펴보도록 한다.

이를 논의하려면 한대 이후 남북조시대까지의 중국 대륙, 고분시대 일본열도의 동경 생산 및 유통, 부장 상황을 제시해야 하겠으나 사실 이는 그동안의 수많은 선행연구에서 정리된 바 있다(徐萃芳 1984; 魏存成 1999; 孔祥星 · 劉一曼(安京淑譯) 2003; 森下章司 2007; 高崇文 2008; 上野祥史 2013; 南健太郎 2019). 지면 관계상 여기서 다시 그 전반적인 상황을 상술하지는 않으며 동경이 지닌 의미와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것만을 적절히 인용하는 것으로 대체한다.

한대 중원 및 낙랑에서는 동경 사용과 관련된 자료(도면 12)나 동경이 사치품이었음을 방증하는 명문⁸⁾이 확인된다. 이러한 사례에서 한대 중원과 낙랑에서는 동경이

8) 미국 하버드대학 부설 Fogg Museum 소장 永平七年(A.D.64)명 내행화문경에는 ‘竟直三百’이라는 명문이 있어 해당 동경의 가치가 300전에 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의 곡물 가격을 1곡(斛)에 50전으로 둔다면 해당 동경은 6곡에 달하는 가치를 가진다. 『續漢書』百官志의 기술대로 하급관료인 두식(斗食)의 봉급이 11곡, 좌사(佐史)의 봉급이 8곡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동경은 하급관료라도 충분히 구매할 수 있는 일종의 사치품이었음을 알 수 있다(岡村秀典 2017: 76~78).



[도면 12] 한대 동경 사용 관련 자료

(1·2.『女史箴圖』, 3.『武氏祠堂 書像石』(南健太郎 2019: 198~200을 수정 후 인용), 4. 氷平7年(AD64)銘 내행화문경(樋口隆康 1979: 圖版 31~62))

화장용구, 사치품 정도의 일상용품으로 기능하였음을 알 수 있다(高久健二 1999; 岡村秀典 2017; 南健太郎 2019; 고일홍 2022). 일상용품으로 기능하였다는 점에서 당시 무덤에부장된 동경은 ‘피장자의 내세를 위해 함께 묻은 일상용품’인 명기(明器)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동경을 빗 등과 함께 목함 혹은 칠함 속에 넣은 채 부장한 사례가 확인되며 한대 중원의 제후왕묘나 왕후묘의 고분에서 직경이 큰 동경이 남성묘보다 여성묘에 부장되는 경향(南健太郎 2019: 207)이 있다는 점은 동경이 화장용구나 사치품 등 일상용품 연장선으로 부장 당시에는 명기의 의미가 담겨있었음을 보여준다.

동진대 이후 중국에서는 동경의 생산 및 부장이 저조해진다(徐萃芳 1984; 魏存成 1999; 孔祥星 · 劉一曼(安京淑譯) 2003). 동진대 이후 사회에서 동경이 지녔던 의미와 관련하여 수 · 당대 사회에서는 한경이 고경(古鏡)으로서 신성하고 귀중하게 여겨졌다는 지적(韓茗 2020: 65)을 참고할 수 있다. 주경업이 침체되고 일반적으로 동경이 부장되지 않는 동진대 이후 사회에서 한식경이 지난 의미는 한대와 달랐을 것이나 적어도 그 수요 자체가 단절되지는 않았던 듯하다. 韓茗(2020)의 견해를 참고하면 이 시기의 한식경은 부장 당시 명기의 의미보다는 ‘복고(復古)’, ‘호고(好古)’ 정도의 의미가 담겨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경은 성립 이후 머지않아 당대 동아시아 사회로 광범위하게 유통된다. 특히 원 삼국시대 한반도에서의 한경 부장은 당시 지배층 분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관련하여 몇 논고를 참고할 만하기에 지면을 할애해 소개해둔다.

安京淑(1998)은 초기철기시대~원삼국시대에 이루어지는 다뉴경에서 한경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각각의 공반유물을 통해 정치적 중심이 종교적 제의권을 담당하던 것에서 대외교역의 관할로 이동한다고 지적하였다.

李熙濬(2011: 67~69)은 지배자의 권력 기반을 경제, 무력, 이념으로 나누어 분석한 Jonathan Haas의 이론을 토대로 청동기시대부터 원삼국시대까지의 분묘에서 출토된 유물에 드러나는 수장 권력 기반을 추론하고 그 변천양상을 살폈다. 특히 원삼국시대에 들어 다량의 철기가 부상되는 것에서 수장 권력의 경제적 기반이 크게 증대하였으며 전한경을 비롯한 각종 청동기물이 피장자의 정치적 지위를 강조하는 이념적 성격을 띤 위세품인 동시에 그 물품의 대내외 교환망에 참여한 피장자의 역할을 말해준다고 보았다.

조진선 · 이은우(2021)는 납동위원소 분석에 의한 청동기~초기철기시대와 원삼국시대 청동기물의 산지분석 결과를 재검토하고 그 변천양상을 확인하였다. 세형동검문화 성립기와 발전기(청동기시대~초기철기시대)에는 15%에 불과했던 중국 북부지역산 원료의 비중이 원삼국시대에 들어 85%로 급증하는 것을 지적하여 그 배경으로 중국 북부지역과의 교류 관계가 활발해졌음을 언급하였다.

세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원삼국시대에 들어 특히 중국 대륙과의 대외교역이 활발해지는 동시에 이를 통해 유입되는 외래계 기물이 대내외 교역의 관할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피장자의 권위를 보여주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삼국시대 한반도에서의 한경은 외래계 기물로써 대내외 교역망의 관할을 보여주어 당시 사회에서 피장자의 권위를 보여주는 것에 효과적이었다는 점에서 위세품의 의미를 담고 부상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이를 모방한 소형방제경 역시 유사하게 신분상징물(이양수 2021b: 479)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고분시대 일본열도에서는 수천 점에 이르는 왜경이 부상되었는데 주로 왜 왕권에서 집중적으로 생산, 관리되고 각지의 수장에게 배포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동경의 종류와 직경에 따라 서열⁹⁾이 형성되었다는 지적도 있으며 동경 자체가 사회발전 및 통합의 측면에서 정치 · 사회적으로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에는 연구자들의 견해가 모여있다. 왜 왕권에서 집중적으로 관리, 배포되었던 기물이라는 점에서 당시

9) 上野祥史(2019)가 그리는 당시 일본열도 내의 동경 서열은 <남북조경(대형) - 남북조경(중형) - 중형 왜경 - 소형 왜경>의 순이다.

일본열도에서 부장된 동경은 ‘왜 왕권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피장자의 권위’를 보여주는 위세품, 위신재의 의미를 담고 있었을 것이다(福永伸哉 1998: 26).

고분시대 일본열도의 동경 부장과 관련하여 한 가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고분시대 전기에 다량의 동경으로 피장자를 감싸듯 부장하는 사례가 확인된다는 점이다. 福永伸哉(2000)는 이 사례 중 신수경이 포함되는 경향이 강하며 경면을 피장자를 향해 세워 부장하는 사례가 확인되는 점, 고분 출현기 전후에 수은주(水銀柱) 사용, 북침매장(北枕埋葬)과 같은 중국사상의 영향이 확인되는 점에서 이를 신선 사상과 관련지었다. 당시 일본열도 사회에서는 경우에 따라 동경이 장송의례를 위한 기물로 기능하였고 그 부장에는 사상적인 기반이 있는 주술적 의미가 담겨 있었음을 생각할 수 있다.

동경이라는 하나의 기물을 고대 동아시아 각 지역사회에서는 저마다 다른 의미로 받아들였고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고대 동아시아 사회에서 동경이 지녔던 의미를 참고로 다음 절에서는 삼국시대 동경 부장의 의미를 추론해보도록 한다.

2. 삼국시대 동경 부장의 의미

삼국시대의 경우 동경을 포함한 금속제 거울의 수량이 전체 50점 정도에 그친다. 공간적 범위가 넓고 수량이 적은 만큼 개별 사례가 가지는 특수성은 크기 마련이다. 다만 개별 사례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삼국시대 한반도 남부 전체를 관통하여 지적할 수 있는 사회적 풍조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를 먼저 논의한 후 권역별 특수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1) 삼국시대 사회에서의 동경

앞서 고대 동아시아 사회에서의 동경은 일상용품으로 기능하여 명기의 의미를 담고 부장되는 경우, 피장자의 권위를 보여주는 기물로 기능하여 위세품의 의미를 지니고 부장되는 경우, 장송의례를 위한 기물로 기능하여 주술적인 의미를 지니고 부장되는 경우 등이 있었다. 이를 삼국시대의 동경에 적용해보도록 한다.

삼국시대 한반도의 경우 동경의 출토 수량이 적기에 당대 사회구성원들에게 광범위하게 유통되었거나 일상적으로 사용되었던 기물은 아니었을 것이다. 낙랑의 경우 당시 한사군으로 기능하며 중국 중원에서 동경이라는 기물과 함께 ‘일상용품으로서

의 동경’, ‘사치품으로서의 동경’이라는 의미까지 함께 수용된 경우에 해당한다. 삼국 시대의 경우 개별 사례에서는 동경이 일상생활에 사용되었을 가능성¹⁰⁾을 지적할 수 있으며 당대 사회에서 사람과 사물의 형상을 비추기 위해 ‘거울’이 사용되지 않았다고는 생각하기 힘들다. 이 경우 동경의 부장에는 명기의 의미가 담겨있었을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 다만 분포 자체가 한정적인 점에서 동경에 명기의 의미를 담아 부장하고자 하는 의식이 한반도 남부를 관통하여 공유되고 있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한편 동경이 피장자의 권위를 보여주는 기물로 활용된 경우 동경은 당대 사회에서 희소성을 가진 기물이었거나 특정 집단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기물이었다. 원삼국시대 한반도에서는 중국의 한식경이 외래계 기물로 희소성을 가지고 있었던 동시에 대내외 교역망의 활동을 보여주는 점(李熙濬 2011)에서 피장자의 권위를 보여주기에 효과적이었다. 고분시대 일본열도의 경우 대부분의 동경이 왜 왕권의 주도하에 유통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두면 그 자체로 동경은 희소성을 넘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을 것이다. 요컨대 왜 왕권과의 관계를 보여준다는 점(上野祥史 2019)에서 동경을 소유한 인물의 권위가 보장되었을 것이다.

삼국시대의 동경은 물론 당대 사회에서 희소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대부분이 한식경, 왜경에 속하는 것으로 외부세력과의 접촉에서 비롯된 기물이었다. 하지만 앞서 검토한 동경의 권역별 분포나 출토양상에서는 권역을 막론하고 동경의 종류나 직경, 부장양상 등이 피장자의 위계와 정합하는 사례를 찾기 힘들다. 분포 자체가 산발적인 동시에 서산, 남원, 창원, 산청 등 고대국가 단계의 중심지가 아닌 지역에서 출토된 사례도 많다. 당시 사회에서 최고위계층에 속하는 고분이라 하여도 신라 권역에서는 월성북고분군의 특정 고분, 금관가야 권역에서는 김해 양동리고분군과 대성동고분군 중에서도 특정 고분으로 분포가 한정적이다. 당대 사회에서 동경, 특히 한식경과 왜경은 희소성을 가진 외래계 기물이었음에도 피장자의 위계를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의미를 지니지는 않았던 듯하다. 오히려 피장자의 위계가 높았기에 다른 다양한 부장품이 부장되는 동시에 모종의 연유로 획득한 한식경과 왜경 또한 부장될 수 있었다고 보는 편이 적절하다.

10) 가령 무령왕릉 출토 부조식수대경, 공주 공산성 4호 수혈 출토 훠룡문경, 김해 대성동 108호묘 출토 방제내행화문경에서는 뉴공에 직물을 걸었던 흔적이 있어 이를 어딘가에 걸어두거나 휴대하였던 것을 보여준다. 또한 무령왕릉 출토 방격규구경, 남원 두락리 32호분 출토 부조식수대경은 동경을 목함에 넣은 채 부장하여 중국 중원과 낙랑에서의 동경 부장양상과 유사한 부분이 확인된다.

동경의 부장, 나아가 동경 자체가 주술적인 의미를 담고있었을 가능성은 생각해 볼 만하다. 직접적으로 백제 중앙 및 중서부지역의 경우 제의행위의 일환으로 동경을 매납하거나 제의 이후 폐기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또한 무령왕릉 출토 동경을 도상과 명문 등에서 호국사상(이양수 2021b: 489) 혹은 천원지방(天圓地方) 및 북두염승(北斗厭勝) 사상(韓茗 2020: 70~76)과 연결짓는 견해도 있다. 이는 동경의 제작지, 제작연대 문제와도 관련되기에 상론하지 않겠으나 해당 동경의 부장에 사상적인 기반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이외에도 한반도 남부를 아울러 동경이 고분에 부장될 때에는 다른 부장품들과 다르게 피장자 신체에 두거나 가까이에 부장되는 경향이 확인된다. 여기서 동경의 부장에 벽사(辟邪, 황정숙 2006) 혹은 피장자의 '내세에서의 안녕'을 기원하는 등 주술적인 의미가 담겨있었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

4세기대 중서부지역의 당진 채운리 7호묘, 서산 기지리 Ⅱ-21호묘, 천안 화성리 B-2호묘와 남해안지역의 순천 운평리 8호묘는 서로 권역이 다르지만 함께 살펴볼 만하다. 4기의 고분에서는 공통적으로 호와 경식이 확인되었으며 각 1점의 동경을 피장자의 신체 가까이 부장하였다. 지역사회 간에 동경을 포함하는 공통적인 부장품 조합이 공유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피장자가 제사장(이양수 2021b: 490) 내지는 주술적인 역할을 하였던 인물일 가능성을 지적할 수 있다.

단 한반도 남부 전체로 보아 역시 수량이 한정적이고 세부적인 부장방법에서 권역별로 그리고 권역 내에서도 개별 사례마다 차이가 있는 것을 보면 동경을 부장하는 공통적인 종교적·신앙적 기반이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다.¹¹⁾ 백제 중앙 및 중서부 지역에서 보이는 동경·철경의 매납도 그 사례가 많지는 않아 '거울'을 필요로 하는 제의행위 자체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라고 본다.

고대 동아시아 사회에서의 동경은 그 의미가 무엇이 되었든 각 사회 속에서 수요가 결코 낮지 않았다. 한대 중원과 낙랑에서는 일상용품으로 기능하였고 이를 명기로 부장하는 의식이 있었기에 동경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수요가 있었다. 동진대 이후에도 동경의 생산 및 부장이 저조하긴 하였으나 한식경의 부장은 그 의미가 어찌되었든 수요 자체가 단절되지는 않았음을 보여준다. 고분시대 일본열도의 경우 동경이

11) 고분시대 전기에 다량의 동경으로 피장자를 감싸는 사례 또한 한반도의 사례(부장유형 D)와는 양적·질적으로 차이가 크기에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역시 무리가 있다.

왜 왕권에서 집중적으로 생산-관리-배포되어 동경의 소유와 부장은 왜 왕권과 연결되는 피장자의 권위를 보여주었으며 경우에 따라 동경이 장송의례를 위한 기물로 기능하여 수요가 있었다.

삼국시대의 동경은 이와는 상당히 대조적이다. 앞서 살핀 사항들을 종합하면 삼국시대 한반도 사회에서는 다른 고대 동아시아 사회만큼 동경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동경에 대한 삼국시대 사회의 수요는 낮았으며 바꾸어 말하자면 동경 자체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다(이양수 2021b: 489). 한식경과 왜경은 외래계 기물이기는 하였으나 역시 동경 자체가 목적이었다기보다는 동경의 소유가 동반되는 활동, 가령 동경의 유입과 유통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외부세력과의 접촉에 주요한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2) 권역별 동경 수용의 문화적 차이

삼국시대 한반도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동경에 대한 수요가 낮았다고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다른 고대 동아시아 사회와 비교하였을 때이다. 앞서 동경·철경의 분포가 권역별로 양적·질적 편차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여기서는 그 요인 중 하나로 권역별로 동경 수용과 활용에 문화적인 차이가 있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¹²⁾

백제 중앙 및 중서부지역 중 특히 5세기대 이후 백제 중앙에서는 종류에 따라 출토양상이 정리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왜경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까지 감안하면 백제 중앙이 동경·철경의 수용과 활용에 의도성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을 지적할 수 있다. 요컨대 백제 중앙에서는 의도적으로 고분 부장품으로는 한식경을 주로 이용하였고 왜경은 의도적으로 들여오지 않았거나 들여왔더라도 고분에 부장하지 않았으며 방제경·철경은 제의행위에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아신왕 6년(397) 태자 전지(腆支)가 왜에 파견¹³⁾되거나, 윤색의 가능성성이 크긴 하나 『日本書紀』 신공기에 칠자경(七子鏡) 관련 기사¹⁴⁾가 확인되는 것을 생각하면 백제 중앙에서는 일본열도 내에서 동경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지, 적어도 일본열

12) 이 외에도 동경의 유입 기회 차이를 양적·질적 편차의 요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왜 왕권이 한반도의 서쪽을 중시하는 형태로 동경을 배포하여 한반도 내 지역별로 왜경의 직경이나 수량에 차이가 난다고 본 견해(上野祥史 2019)를 참고할 만하다.

13) 『三國史記』 卷25, 「百濟本紀」 3 阿莘王, “六年 夏五月 王與倭國結好 以太子腆支爲質(이하 생략)”

14) 『日本書紀』 卷9, 「神功紀」, “五十二年秋九月丁卯朔丙子 久氏等從千熊長彥詣之 則獻七枝刀一口 七子鏡一面 及種種重寶(이하 생략)”

도에서 동경의 수요가 높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동경·철경의 매납이 백제 중앙 및 중서부지역에서 긴 시간 지속된다는 점에서 해당 권역이 동경의 수용과 활용에 있어 여타 권역과는 구분되는 수준의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확실하다. 출토양상이 동경·철경의 종류에 따라 정리되기에 <한식경/왜경/방제경·철경>처럼 동경, 나아가 철경까지를 구분하여 활용하였을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영산강유역 및 남해안지역, 기타 가야 권역, 두 권역에서는 왜경의 분포가 눈에 띈다. 해당 권역들에서는 고분과 갑주를 비롯하여 왜계 문화요소가 다른 권역보다 짙게 확인되어 일본열도와 더욱 밀접한 인적·물적 교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타 권역에 비해 동경을 고분에 부장하는 의식이 수용되기 용이했을 것이며 왜경의 수용과 활용에 있어서도 더욱 개방적이었을 것이다. 이는 왜경의 분포가 두드러지는 점, 특히 담양 제월리 고분에서 피장자 두부 양옆에 왜경을 1점씩 부장한 것에서 드러난다고 본다.

다만 영산강유역 및 남해안지역에서는 동경·철경의 종류에 따른 출토양상의 차이가 뚜렷이 확인되지 않으며 기타 가야 권역의 경우 사례가 부족하여 출토양상의 차이를 논단하기 어렵다. 두 권역에서 동경·철경의 종류에 따른 활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설명하기 어려우나 고흥 야막고분에서 한식경과 왜경이 의도적으로 다르게 부장된 것에서 종류에 따른 구분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해둔다.

신라 권역 중에서도 월성북고분군을 중심으로 하는 신라 중앙은 출토양상을 확인한 동경·철경 3점이 모두 단순한 부장품으로 취급된 듯하다. 황남대총 남분의 방격 규구경은 목곽 상부에 부장되어 다른 동경·철경과 부장위치가 다르나 목곽 상부에는 토기류와 청동제다리미가 확인되어 역시 부장품의 연장선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동경 부장이 비교적 적고 특정 종류에 편중되지 않는 점을 생각하면 신라 중앙에서는 외부세력과의 접촉에서 비롯된 동경·철경을 일종의 ‘교류의 증표’ 내지는 ‘희소한 장식품’ 정도의 의미를 지닌 부장품으로 인식한 듯하다. 단순한 부장품으로 인식하였다면 한반도 내에서도 동경에 대한 수요는 신라 중앙에서 특히 낮았을 가능성이 크다. 동경·철경을 종류에 따라 구분하는 것 또한 <한식경/한식경이 아닌 것> 정도로 간단하였을 것이다.

금관가야 권역에서는 특히 김해 양동리고분군과 대성동고분군에서 파경 및 재가 공품이 확인된다. 파경 여부나 재가공이 이루어진 장소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

겠으나 적어도 파경, 재가공품을 고분에 부장하는 의식이 있었던 것은 돌출적이다.¹⁵⁾ 한편 한식경과 이를 재가공한 제품을 피장자와 가까이 부장하고 왜경은 다른 부장품들과 함께 피장자 두부 상단의 부장공간에 부장한 것에서 종류에 따른 구분이 제한적이나마 이루어졌던 듯하다.

한반도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동경에 대한 수요가 높지 않았고, 백제 중앙 및 중서 부지역을 제외하면 모두 고분에 부장된 사례뿐이다. 따라서 종류에 따른 구분은 어디까지나 선호도, 기호(嗜好)와 유사하거나 단순한 구별 정도였을 것이다. 동경을 장식하는 문양요소, 해당 동경이 유입되는 장(場)을 통해 당대 인물들은 동경의 기원이 중국인지 일본열도인지 아니면 다른 곳인지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본다. 한편 한식경과 왜경은 기본적으로 외부 세력과의 접촉에서 비롯되었고 희소성을 가진 기물이었기에 동경의 소유나 부장이 피장자의 권위를 담보하지는 않았더라도 당시 지역사회의 수장묘에 부장될 수 있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울러 외래계 기물이라는 점에서 한반도 내에서의 유통이 이루어졌다면 특정 세력 사이의 정치적인 의도가 담긴 기물로 기능했을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이렇듯 권역을 막론하고 한반도 사회에서 동경에 대한 수요가 높지 않았다고 해도 권역별로 동경을 받아들이는 것에는 차이가 있었다. 한반도 각 지역사회에서는 저마다의 시각에서 동경·철경을 이해하고 서로 다르게 동경을 활용하였다. 이는 다른 고대 동아시아 사회와는 다른 특징적인 면모를 보인다.

V. 맷음말

하나의 기물이라고 하더라도 보는 이에 따라 기물을 바라보는 시각은 모두 다르기 마련이다. 각 개인은 저마다의 경험을 기반으로 해당 기물을 이해하고 의미를 부여한다. 이렇게 특정 기물에 대한 인식이 생기며 그 인식은 때로는 공유되고 재생산되며 확산되는가 하면 때로는 점차 소멸되기도 한다.

고대 동아시아의 동경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겪어 각 지역사회에서 저마다의

15) 원삼국시대에는 경산 임당 D-58호묘, E-138호묘, 신대리 37호묘, 경주 조양동 38호묘 등에서 동경을 원형으로 재가공한 제품들이 확인되지만(李陽洙 2011) 4세기대 이후의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의미를 지니고 소비되어왔다. 때로는 사치품과 같은 일상용품으로, 때로는 신기의 성격을 가진 의기(이청규 2003: 127)로, 때로는 정치적 기물로 기능하며 각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에 주목하여 삼국시대 동경을 단순히 외래계 기물로 바라보지 않고 이것이 삼국시대 사회에서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동경의 출토양상에서 동경이 당대 사회에서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를 살폈고 다른 고대 동아시아 사회에서 동경이 지녔던 의미를 참고하였다. 이를 통해 삼국시대 사회에서 동경은 다른 고대 동아시아 사회만큼 수요가 높지 않았으며 각 지역사회에서는 저마다의 시각에서 동경을 다르게 이해하였고 서로 다르게 활용하였다고 결론지었다.

그동안 삼국시대의 동경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지 추론하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삼국시대 한반도 남부 전체를 대상으로 권역별 동경의 분포와 출토양상에서 확인되는 상사성과 상이성을 지적함으로써 권역별 동경 수용 및 활용의 차이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본고의 분석에는 맹점이 있었다고 본다. 수계와 지형, 정치체를 고려하여 한반도 남부 전체를 5개의 권역으로 구분하였고 이후의 논지에서도 권역은 큰 기준이 되었다. 그러나 동경의 수량이 적은 만큼 개별 사례가 가지는 특수성은 크기 마련이다. 본고에서는 한반도 남부를 아울러 얘기하면서 개별 사례의 특수성을 필요 이상으로 축약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아직 삼국시대의 동경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더욱 검토되어야 한다. 제작기법적인 분석을 통한 제작지, 제작연대의 해결은 물론이며 한식경과 왜경의 유입경로와 그 배경 등 많은 부분에서 논의의 여지가 많다. 이러한 논의들을 추후의 과제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투고일 2023. 8. 28 | 심사완료일 2023. 9. 27 | 게재확정일 2023. 10. 10

참고문헌

- 국문 -

- 慶尙大學校博物館, 2006, 『山淸 生草古墳群』.
- _____, 2009, 『山淸 生草 M12 · M13號墳』.
- 慶星大學校博物館, 2000, 『金海 大成洞古墳群 I』-概報-.
- 고일홍, 2022, 「고대 동아시아의 물품이동과 그 영향 : 한경의 사례」, 『동유라시아 세계의 물품이동과 문화변용』 제41회 동계연구토론회 발표자료집, 동양사학회 외.
- 公州大學校博物館, 2009, 『海美 機池里 遺蹟』-本文-.
- 公州師範大學博物館, 1987, 『公山城 百濟推定王宮址 發掘調查報告』.
- 구중희, 2006, 「무령왕 관련 구리거울 연구」, 『百濟文化』35,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21, 『황남대총 북분』발굴조사의 기록.
- 國立慶州博物館, 2007, 『國立慶州博物館 所藏 鏡鑑』.
- 國立公州博物館, 1991, 『天安 花城里 百濟墓』.
- _____, 2009, 『武寧王陵 新報告書』I .
- _____, 2021, 『武寧王陵 新報告書』VII.
- 國立光州博物館, 1984, 『海南 月松里 造山古墳』.
-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14, 『高興 野幕古墳』.
- 國立扶餘文化財研究所, 2002, 『花枝山 遺蹟發掘調查報告書』.
- 國立全州博物館, 1994, 『扶安 竹幕洞 祭祀遺蹟』國立全州博物館 學術調查報告 第1輯.
- 국립중앙박물관, 2014, 『慶州 瑞鳳冢 I (遺物篇)』.
- _____, 2020, 『慶州 瑞鳳冢 II (재발굴 보고)』.
- 금강문화유산연구원, 2019, 『대전 석봉동 유적』.
- 金度憲, 2000, 「晋州 中安洞出土 遺物」, 『伽耶考古學論叢』3, 駕洛國史蹟開發研究員.
- 김영덕, 2001, 「청동거울에 담겨 있는 백제와 왜의 역사」, 『한국민족학연구』5, 단국대학교 한국민족학연구소.
- 金元龍, 1964, 「潭陽出土의 三國時代 銅鏡 二面」, 『李相伯博士回甲紀念論叢』, 想白李相伯博士回甲紀念論叢編輯委員會.
- 金鍾徹, 1979, 「Ⅲ 高靈池山洞 第45號 古墳發掘調查報告書」, 『大伽倻古墳發掘調查報告書』慶北大學校博物館叢書4, 高靈郡.
- 김자은, 2021, 「마한 · 백제권 고분 출토 외래경의 부장 배경」, 『湖南考古學報』第68輯.
- 대성동고분박물관, 2015, 『金海 大成洞古墳群 -70호분 主櫛 · 95호분』.
- _____, 2022, 『金海 大成洞古墳群 96 ~ 149호』.
- 동신대학교문화박물관, 2014, 『해남 만의총 1호분』.
- _____, 2015, 『신안 안좌면 입동 · 배널리 고분군』.
- 東義大學校博物館, 2021, 『金海 良洞里古墳群 V』.
-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1985, 『皇南大塚(北墳)』.
- _____, 1993, 『皇南大塚』慶州市 皇南洞 第98號古墳 南墳 發掘調查報告書 (圖版 · 圖面).
- _____, 1994, 『皇南大塚』慶州市 皇南洞 第98號古墳 南墳 發掘調查報告書 (本文).
- 文化財管理局 編, 1974, 『武寧王陵』.
- 朴淳發, 1998, 「竹幕洞遺蹟出土 土器의 性格과 年代에 對하여」, 『扶安 竹幕洞 祭祀遺蹟 研究』開館伍周年紀念學術심포지움 論文集, 國立全州博物館.
- _____, 2001, 「馬韓 對外交涉의 變遷과 百濟의 登場」, 『百濟研究』第33輯.
- 박천수, 2007, 『새로 쓰는 고대 한일교섭사』, 사회평론.

- 박천수, 2023,『고대 한일교류사』, 경북대학교출판부.
- 복천박물관, 2009,『神의 거울 - 銅鏡』.
- 釜山女子大學校博物館, 1984,『昌原 三東洞 龜棺墓』.
- 順天大學校博物館, 2010,『順天 雲坪里 遺蹟 II』.
- 安京淑, 1998,「多鈕鏡에서 漢鏡으로 轉換에 대한 研究」,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솔연, 2021,「부여 상황리 일대 백제 고분군의 분포와 위상」,『한국전통문화연구』28,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연구소.
- 李陽洙, 2010,『韓半島 三韓·三國時代 銅鏡의 考古學的研究』, 釜山大學校 大學院 文學博士 學位論文.
- _____, 2011,「圓形으로 再加工된 漢鏡에 대하여 -破鏡과의 關係를 中心으로-」,『嶺南考古學』57號.
- _____, 2021a,『연호문(連弧文)의 제도와 삼한경(三韓鏡)의 기술 계보』,『문화재』54, 국립문화재연구소.
- _____, 2021b,『백제의 동경 속에서 무령왕릉 출토 동경의 의미』,『무령왕릉 신보고서VII』, 국립공주박물관.
- 이유진, 2010,「5~6세기 한반도 출토 왜경(倭鏡)의 성격」,『청동거울과 고대사회』, 복천박물관.
- 李在賢, 2000,『伽倻地域出土 銅鏡의 交易體系』,『韓國古代史論叢』9,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 이청규, 2003,『青銅器와 儀禮-韓日間의 비교-』,『한국문화사상대계』4, 영남대학교출판부.
- 李熙濬, 2011,「한반도 남부 청동기~원삼국시대 수장의 권력기반과 그 변천」『영남고고학58』, 영남고고학회.
- 全南大學校博物館, 1994,『光州 月桂洞長鼓墳·雙岩洞古墳』.
- _____, 2015,『高興 吉頭里 雁洞古墳』.
- 全北大學校博物館, 2015,『남원 유곡리 및 두락리 32호분』.
- 조진선·강은주, 2020,「1959년 담양 제월리 유적의 조사와 그 의미」,『호남고고학보』66, 호남고고학회.
- 조진선·이은우, 2021,「남한지역 청동기-초기철기시대 청동기의 산지추정과 의미」,『한국상고사학보』114, 한국상고사학회.
- 崔夢龍, 1976,「담양 제월리 백제고분과 그 출토유물」,『문화재』10, 국립문화재연구소.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08,『唐津 彩雲里遺蹟』.
- 韓國文化財保護財團, 1998a,『慶山 林堂遺蹟(IV) D-II 地區 古墳群(本文)』.
- _____, 1998b,『慶山 林堂遺蹟(IV) D-II 地區 古墳群(圖面·圖版)』.
- _____, 1998c,『慶山 林堂遺蹟(V) D-II 地區 古墳群(本文)』.
- _____, 1998d,『慶山 林堂遺蹟(V) D-II 地區 古墳群(圖面·圖版)』.
- 洪思俊, 1995,「부여 허황리 백제고분 출토의 유물」,『百濟史論集』, 도서출판 향지.
- 황정숙, 2006,「高麗 中·後期 思想을 통해본 銅鏡 文樣의 象徵性 研究」, 대구가톨릭대학교 예술학과 박사학위논문.

- 중문 -

- 高崇文, 2008,「한위남북조시대 동경의 발전계보와 한반도에서 출토된 동경의 관계」,『Journal of China Studies』5, 부산대학교 중국연구소.
- 孔祥星·劉一曼(安京淑譯), 2003,『中國古代銅鏡』, 도서출판 주류성.
- 徐萍芳, 1984,『三國兩晉南北朝的銅鏡』,『考古』1984年 第6期, 科學出版社.
- 魏存成, 1999,『中國 三國兩晉南北朝의 銅鏡과 日本 三角緣神體鏡』,『考古歷史學志』15, 동아대학교박물관.
- 程林泉·韩国河, 2002,『長安漢鏡』,陝西人民出版社.
- 周 錚, 1987,「“規矩鏡”應改稱“博局鏡”」,『考古』第12期, 科学出版社.
- 韓 茗, 2020,「백제 무령왕릉 출토 동경(銅鏡) 재검토」,『百濟研究』72, 忠南大學校 百濟研究所.

- 일문 -

- 加藤一郎, 2014, 「後期倭鏡研究序説 -旋回式獸像鏡系を中心に-」, 『古代文化』第66巻 第2号, 公益財団法人古代学協会.
- _____, 2017, 「乳脚紋鏡の研究」, 『古代』第140号, 早稲田大学考古学会.
- 岡村秀典, 1984, 「前漢鏡の編年と様式」, 『史林』67-5, 史學研究會.
- _____, 1993, 「後漢鏡の編年」, 『國立歴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55.
- _____, 2017, 『鏡が語る古代史』, 岩波新書.
- 高久健二, 1999, 「樂浪古墳出土의 銅鏡」, 『考古歴史學志』第15輯, 東亞大學校博物館.
- 高田貴太, 2005, 「日本列島 5, 6世紀 韓半島系 遺物と 本 韓日交渉」, 慶北大學校 考古人類學科 博士學位論文.
- 南健太郎, 2019, 『東アジアの銅鏡と弥生社会』, 同成社.
- 福永伸哉, 1998, 「鏡の多量副葬と被葬者像」, 『季刊考古学』第65号, 雄山閣.
- _____, 2000, 「古墳における副葬品配置の変化とその意味 -鏡と剣を中心にして-」, 『待兼山論叢』史学篇 第34号, 大阪大学文学部.
- _____, 2021, 「무령왕릉 출토 동경의 계보와 연대」, 『百濟研究』第74輯, 忠南大學校 百濟研究所.
- 山尾幸久, 1989, 「隅田八幡畫像鏡が語る日韓關係」, 『古代の日韓關係』塙書房.
- 森下章司, 1991, 「古墳時代仿製鏡の変遷とその特質」, 『史林』74-6, 史学研究会.
- _____, 2002, 「古墳時代倭鏡」, 『考古資料大觀』5 弥生・古墳時代 鏡, 小学館.
- _____, 2007, 「銅鏡生産の変容と交流」, 『考古学研究』第54巻 第2号, 考古学研究会.
- 上野祥史, 2004, 「韓半島南部出土鏡について」, 『國立歴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第110集, 国立歴史民俗博物館.
- _____, 2013, 「中国鏡」『古墳時代の考古学4 副葬品の型式と編年』同成社.
- _____, 2014, 「萬義塚1號墳出土倭鏡と倭韓の相互交渉」, 『해남 만의총 1호분』, 동신대학교문화박물관.
- _____, 2019, 「朝鮮半島南部の鏡と倭韓の交渉」, 『國立歴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第217号, 国立歴史民俗博物館.
- 小林三郎, 1983, 「捩文鏡とその性格」, 『遠藤元男先生頌壽記念 日本古代史論苑』遠藤元男先生頌壽記念会, 国書刊行会.
- 小田富士雄, 1988, 「韓国古墳出土の倭鏡」, 『考古学叢考』斎藤忠先生頌壽記念論文集, 斎藤忠先生頌壽記念論文集刊.
- 水野敏典, 1997, 「捩文鏡の編年と製作動向」, 近藤義郎 他 編『日上天王山古墳』津山市埋蔵文化財発掘調査報告 第60集, 津山市教育委員会・日上天王山古墳発掘調査研究会.
- 新井惡, 2010, 「韓半島 南部 出土 古墳時代 倭鏡」, 『청동거울과 고대사』, 복천박물관.
- 辻田淳一郎, 2018, 『同型鏡と倭の伍王の時代』, 同成社.
- 岩本崇, 2018, 「旋回式獸像鏡系倭鏡の編年と生産の画期」, 『古天神古墳の研究』, 島根大学考古学研究室調査報告第17冊, 島根大学法文学部考古学研究室・古天神古墳研究会.
- 田中俊明, 2007, 「鏡をめぐる古代の日韓」, 『한반도의 청동기 제작기술과 동아시아의 고경』, 大韓民國 國立慶州博物館・日本 奈良県.
- 田中琢, 1981, 『古鏡』日本の美術 No.178.
- 井上主税, 2005, 「倭系遺物을 통해 본 금관가야 세력의 动向」, 『韓國考古學報』第57輯, 韓國考古學會.
- 車崎正彦 編, 2002, 『考古資料大觀』5 弥生・古墳時代 鏡, 小学館.
- 朝鮮總督府, 1916, 『朝鮮古蹟圖譜』三.
- _____, 1932, 『大正十三年度古蹟調査報告』第一冊 本文 -慶州金鈴塚飾履塚發掘調査報告.
- _____, 1932, 『大正十三年度古蹟調査報告』第一冊 圖版 -慶州金鈴塚飾履塚發掘調査報告.
- 清水康二, 1994, 「做製内で花文鏡類の編年 -做製鏡の基礎研究 I-」, 『権原考古学研究所論集』第11, 吉川弘文館.
- 土田純子, 2012, 「백제유적 출토 중국 자기에 대한 전세론 검토 - 중·일의 사례와 관련하여-」, 『한국고고학보』82, 한국고고학회.
- 樋口隆康, 1979, 『古鏡』, 新潮社.
- 下垣仁志, 2003, 「古墳時代前期倭製鏡の編年」, 『古文化談叢』第49集.
- 脇山佳奈, 2014, 「小型仿製鏡をめぐる考古学的研究」, 広島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人文学専攻 博士學位論文.

The Meaning of Buried Bronze Mirrors in the Three Kingdoms Period

Kim, Dong-Gyun

(Researcher, Silk Road Survey & Research Center,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In ancient East Asia, bronze mirrors were objects that enabled their creators and users to reflect their perceptions. Each ancient East Asian society interpreted and utilized the mirrors differently according to their needs.

Instead of simply perceiving the Three Kingdoms Period's bronze mirrors, especially Han-style bronze mirrors and Japanese bronze mirrors, as foreign artifacts, this paper aims to delve into the significance of the bronze mirrors in the Korean Peninsula during that time and examine how they were received and utilized by different communities.

Southern Korean Peninsula during the 4th~6th centuries, which were part of the Three Kingdoms Period, is first sorted into five regions based on topography, water systems, and political entities. Next, the excavated context of bronze mirrors from each region is examined to study how these mirrors were buried and disposed of. The significance of bronze mirrors within ancient East Asian societies is, then, used as a reference to infer the importance of the mirrors within Korean communities during the Three Kingdoms Period.

In conclusion, bronze mirrors were not in high demand within various Three Kingdoms Period societies on the Korean Peninsula unlike within the societies that existed in other parts of ancient East Asia. Furthermore, each society on the Korean Peninsula interpreted and utilized bronze mirrors in a unique way that

aligned with its specific needs. This was dissimilar to practices observed in other ancient East Asian societies.

The way an object is perceived varies from person to person. Sometimes, perceptions of objects are shared, reproduced, and diffused throughout societies. At other times, the perceptions slowly fade away. Through examining bronze mirrors, this paper demonstrates that a type of object can be received and utilized in diverse ways depending on the context of time and space.

Key words : Bronze Mirror, Buried Pattern, Han-style Bronze Mirror, Japanese Mirror, Perception